



과학기술과 조국의 미래
지식경제의 주인들
더 밝게 웃어라
먼 앞날의 일이 아니다

64년만에 동생과 만난 황기봉로인

금강산

6

주제 103(2014)
루체 제298호 월간

돌파하라 최첨단을

랑만적으로 밝게 ($\text{♩}=133$)

작사, 작곡 황진영

1. 무엇이나마 음만 먹으면 - 프로그램에 따라 만드는 -
 선군시대기계공업 의 자랑 - 우리식 - C N C 기술
 (후렴) G C G Am Bm Am D
 C N C 는 주체공업의 위력 C N C 는 자력갱생의 본때
 G C G Am A7 D 장단
 장군님 가리키는길따라 돌파하라 최첨단을 -
 아 - 아리랑 아 리랑 민 족의 자존심 높이
 C E7 Am D G
 과학기술강 - 국을 세 우자 행 복이 파도쳐온다

2.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떨어지면 기술의 노예되리
 첨단으로 세계향해 나가는 우리식 CNC기술
 (후렴)

3. 애국으로 심장이 불타면 점령 못할 첨단은 없어라
 선군으로 백배해진 힘으로 모든것에 패권을 주자
 (후렴)

차례

지식경제시대의 앞장에서

좌담회

과학기술과 조국의 미래



일화

창조와 혁신에서 지식은 최대의 재부	6
전민과학기술인재화	7
최첨단돌파로 얻어온 열매	8
지식경제의 주인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친형성 조국과 인민을 위해	14
----------------	----

생산장성의 비결

더 많은 비단실을	18
-----------	----

금니화를 발전시킨 미술가

수기	20
----	----

영원한 해양의 빛발속에	23
--------------	----



방문기

더 밝게 웃어라	24
----------	----

체육활동에 힘을 넣는다	26
--------------	----



류경구강병원에서	28
----------	----

조국의 품에 안겨

가풍과 애국	30
--------	----

고향소식

오늘의 모습에서 래일을 보다	32
-----------------	----

편지

보람의 일념뿐입니다	34
------------	----

마음속에 새겨진 만경대	35
깊어지는 생각	35
그리움과 흥모심의 뜨거운 분출	36
그리움은 세기를 이어	42
신비한 나라 조선	44
오직 통일의 힘으로	45
현대조선	
천리마조선의 새 역사 (2)	46
력사인물	
언어학자 최세진	47
민족의 향기	
자기에게 어울리는 조선치마저고리를 지어입자면	48
사화	
뉴욕의 용맹	50
우리 나라의 자연호와 인공호	50
수기	
밀 알날의 일이 아니라	52
『순시회지 꿀꿀』	53
겨레는 6. 15통일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54
평화를 파괴하는 장본인	55
귀를 기울여야 한다	56



상식	
민족의 자랑 고려종이(참자)	22
『고려사』	30
과일은 석전에	44
유모아	
공통점	45
조선속담 (어리석음)	47

— 지식경제시대의 앞장에서 —

좌담회

과학기술과 조국의 미래

최 성 : 국가과학원 공업정보연구소 소장

박민열 : 국가과학원 균주보존연구소 실장 (김정일상 수상자, 박사)

오향식 :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박윤삼 : 리파대학 실장 (박사, 2. 16과학기술상 수상자)

한신애 : 본사기자

기자 : 과학기술은 조국번영의 기초이고 비약의 원동력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초에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올해를 과학기술성과의 해, 과학기술승리



최성

의 해로 빛내이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의도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 국가과학원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최성 : 그렇다.

솔직히 말하여 나라일이 그

처럼 바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1월 14일, 아직은 많은 과학자들이 출근길에 있던 때에 우리 국가과학원을 몸소 찾아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날 원수님께서 국가과학원혁명사적관파 111호제작소, 과학전시관 등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며 여러차례 강조하신것은 과학자살림집건설문제였다. 그이께서는 천수백세대의 살림집건설부지를 확정해주시고 착공날자와 완공날자를 직접 정해주시였으며 『위성과학자거리』라고 거리의 이름까지 명명해주시였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시여 지도를 보시며 과학자 휴양소자리도 잡아주신 우리의 원수님이시다.

박민열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침침을 주시였다.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

키며 연구성과들을 현실에 제때에 도입하는 문제, 과학기술의 힘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갈데 대한 문제, 새 세대 과학자들속에서 사회주의는 조국이고 조선로동당은 어머니품이라는 신념 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분원, 연구소들사이의 협력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연구성과도입을 위한 투자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과학연구사업은 생 눈길이나 같다고, 경제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과학기술



박민열

— 지식경제시대의 앞장에서 —

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연구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즉석에서 다 풀어주시였으며 새로운 비약의 날개도 큼직하게 달아주시였다.

그날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제일 우리의 짐장을 두드린것은 과학전선이야말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라고 하신 말씀이다.

박윤삼 : 정말 가슴이 뜨거워진다.

우리 과학원에는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령도의 자욱이 참으로 뜨겁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한창인 때에 국가과학원을 창설해주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루는데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온 사회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주체88(1999)년 1월에 국가과학원을 찾아주신 그이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과학원의 여러 단위를 돌아보시면서 과학연구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과학기술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릴데 대한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오광석 :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신 이후에도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가르침을 주시였다.

우리는 새형의 레이자를 개발하고 대규모집적회로들을 설계제작하여 계렬생산에서 성공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음성인식프로그램, 토지정리최량화설계지원프로그램 등을 개발한것을 비롯하여 과학연구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최성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에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방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발휘한 충정과 높은 애국심, 투쟁기풍을 본받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도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년대와 년대를 넘어 비약을 일으켜나갈 의지로 충만되어있다.

그러자면 뭐니뭐니해도 에네르기문제를 비롯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긴장한 전력문제, 에네르기문제를 어떻게 하나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풀어 인민경제를 활성화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박윤삼 : 이번에 과학원에 오신 원수님께서 과학전시관

을 돌아보실 때였다. 거기에 전시되어있는 첨가제를 보신 원수님께서는 이 첨가제는 이미 자신께서 잘 알고있다고, 저열단을 쓰고있는 여러 분야에 도입해야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수님께서 아시는 첨가제를 개발한 나는 어버이장군님도 만나뵙고 박사도 되었으며 2. 16과학기술상도 받았다.



오광석

지금 우리는 화력발전소보이라에 산소—미분무연탄착화기술을 도입하고 중형 및 대형발전소들에서 지능형려자조종설비의 도입으로 발전기려자체계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실에서 겸증된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선진기술을 확대도입하는것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나서고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있다.

박민열 : 지금 과학자들의 열의는 대단하다. 우리 균주보존연구소안의 연구사들도 사회주의전초선을 과학기술

로 굳건히 지켜갈 결의에 넘쳐있다.

지난 기간 우리는 정향복합균을 비롯한 여러가지 균으로 영양제를 만들어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비롯한 보건기판들에 보내주어 많은 성과를 이루하였다.

지난 2월 평양시의 애육원과 육아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평가였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정향복합균을 비롯한 여러가지 균과 그것으로 만든 영양제들은 만경대김치공장과 대성김치공장, 체육단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커다란 응용을 냈다. 우리는 핵심기초기술에 주되는 힘을 넣고 최첨단돌파의 승전고를 울려야 한다고 하신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받들고 더 많은 실적으로 과학기술의 전초선을 지켜나가겠다.

오광석 : 무엇을 하나 착상하고 연구성과를 내놓아도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대로 심화시키며 연구성과들을 현실에 제때에 도입해나가야 한다.

이번에 원수님께서는 과학전시관의 어느 한 도판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것은 지하단층촬영기술을 소개하는 성과전시도판이였다. 그이께서는 그 도판을 바라보시며 지열난

방체계를 도입할데가 많다고, 특히 육아원, 애육원들에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지난 기간 우리는 땅속을 들어다보는 기계를 만들면 좋겠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여 지하단층촬영기를 제작하였으며 그후에 CT촬영기를 비롯한 많은 과학적 발명을 하여 탄광, 광산, 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여러 부문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

우리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지열난방체계도입을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탄광, 광산들의 간안에



박윤삼

서 실시간으로 3차원영상을 얻기 위한 간내탄성파—전기종합CT탐사체계확립을 위해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최성 : 지난 기간 우리 연구소에서도 인민경제 생산기술공정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데서 성과를 거두었

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순천화학련합기업소, 대동강타일공장 등에 나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남기신 유훈을 관철하였다.

올해에 우리는 우리식의 분산형콤퓨터조종체계 실용판을 개발도입하여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과학기술발전의 성과와 그 전도는 과학기술인재에 의하여 결정되며 과학기술강국은 곧 과학기술인재강국이다.

오늘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올해를 과학기술의 해로 빛내이기 위해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 기술자들의 신념에는 국경이 있고 자기의 혁명진지가 있다.

자기 땅에 발을 불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혁신적인 안목, 두뇌전, 실력전으로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조국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과학기술로 세계를 딛고 오르기 위하여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과학기술전선을 튼튼히 지켜나가겠다.

기자 :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고맙다. 과학연구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기대한다.

* * *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경제의 CNC화를 더욱 다그치기 위하여 정력적인 령도의 나날을 이어가시던 주체96(2007)년 8월 어느날이였다.

통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던 그이께서는 압축기직장에 들리시였다.

직장에는 새형의 압축기들과 그 압축기들을 낳은 CNC설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압축기들과 그 생산공정을 일별해보시던 그이께서는 탄광, 광산같은데 보내줄 압축기는 좀 어두운 색깔로 도장하여주고 식료공업부문이나 기계공업부문같은데는 밝은 색깔로 도장하여주는것이 좋을것이라고, 도장의 질

이 많이 올라갔다고, 이만 하면 괜찮다는 평가를 주시였다.

정밀가공설비앞에 이르신 장군님께서는 기대공에게 설비를 동작시켜보라고 이르시였다.

기대공은 설비를 돌리기 시작하였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작업 모습을 지켜보시며 기대공들이 기술기능수준이 낮아 CNC설비들을 아직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앞으로 CNC설비들의 운영방법을 끊임없이 배우며 숙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군님의 그 가르침을 새기며 기업소책임일군은 여기 정밀가공종합작업

반 성원들의 태반이 공장대학을 졸업한 동무들인데 기능로동도 해보고 공부도 하였기때문에 전문기술을 배우는 속도가 빠른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창조와 건설에서 지식은 최대의 재부이라고, 공장대학을 나왔건 어느 대학을 나왔건 누구나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그래야 CNC설비들을 잘 다룰수 있고 시대의 발전추세를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장군님께서 기업소를 떠나가셨지만 그이께서 남기신 말씀의 마디마디는 기대공만이 아닌 전체 통성의 로동계급을 CNC화의 높은 령마루에로 떠밀어주는 귀중한 지침으로 지울수 없는 여운을 남기였다.

인민대학습당에서 학습하고있는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조국에서 과학기술부문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중요전선의 하나이다.

올해 조국의 과학기술부문앞에 나선 과업은 온 사회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인민이 현대적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는것이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란 말그대로 전체 인민 모두를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한 과학기술인재로 준비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최첨단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식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 조국을 과학기술인재대국으로 건설하는것이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오늘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오늘의 시대는 지식경제시대이며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다. 지난 시기와는 달리 과학기술지식이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주도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결과 자원과 토력, 에너르기의 지출을 극력 줄이면서도 생산의 효률성을 최대로 높이고있으며 지적제품의 다품종화, 생산의 유연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고있다.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생산과 경제발전에서 노는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는 지식경제시대는 날이 갈수록 높은 지적능력을 소유한 인재들을 수많이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시대적요구로부터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인재확보를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내세우고 인재육성과 인재쟁탈을 위한 경쟁에 열을 올리고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있다. 인재확보전략에서 매 나라들이 자기나름의 특색을 가지고있지만 높은 지능을 소유한 몇몇 안되는 고급인재들에 의거하여 경제발전을 다그치고 생산장성을 이룩한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인재확보방식으로써는 지식경제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문제를 결정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능력있는 인재배출에 대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는 오직 이

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 모든 사람들을 현대과학기술에 정통한 인재로 키우는데 선차적인 관심과 결정적힘을 넣어 적극적으로 밀고나갈 때에만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지식경제시대의 이러한 절박한 요구를 가장 완벽하게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하고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강성국가건설의 현실적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오늘 조국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전반을 지식의 힘에 의하여 장성하는 지식경제산업을 가진 경제강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수재교육에만 의거하여 과학기술인재들을 양성하거나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인재들을 끌어들여 인재의 수를 늘리는 식으로는 나라의 전반적 과학기술을 짧은 기간에 최첨단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식경제강국건설에 필요되는 인재수요를 원만히 충당할수 없다. 또 나라를 과학기술인재대국으로 건설하려는 원대한 구상과 결심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없다.

남들이 한걸음을 걸을 때 열걸음을 내짚어 단숨에 모든 산업이 고도로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된 지식경제산업을 건설하는것이 조국이 건설하려는 지식경제강국의 목표이다. 이웅대한 목표를 달성하자면 CNC설비를 비롯한 최첨단기술이 도입된 현대적생산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룰줄 알뿐아니라 새 기술을 부단히 혁신해나가는 창의고안의 능수, 능력있는 인재들이 절실히 필요된다.

이처럼 인민경제의 그 어느 부문에서나 다 요구되는 인재수요를 원만히 충당하자면 몇몇 안되는 과학기술력량에만 의거할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모두가 현대과학기술을 배워야 한다.

참으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관한 사상이 있어 조국은 지식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내에 최절정에 올려세우며 가까운 앞날에 과학기술인재대국으로 될수 있는 휘황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Kulak Anti-Virus

리눅스병렬계산체계
High Performance Parallel Computing System온하수
UNHASU

상업경영관리지원체계

부홍 1.0

상업경쟁사기관의
상업 및 경영관리 표준화

정보화실현

상업경영활동

정보화실현

IP전화봉사체계
VoIP Solution

Mid-night Sun

도입대상 Applications

최첨단돌파로 인아온 열매

『최첨단을 돌파하라!』
라는 구호밑에 조국땅 어디서나 과학기술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그속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도 있다.

연구소는 대학의 교육정보화와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최첨단 콘솔웨어 및 하드웨어제품들을 개발 및 연구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

연구소는 발족한지 근 20년이 되어온다.

그 나날 연구소에서는 인공지능, 과학기술계산 등 각종 프로그램제품들을 개발하여 대학의 정보화실현은 물론 나라의 정보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화상처리체계프로그램개발자들

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최근년간에 들어와서도 VoIP기술에 기초한 정보통신체계와 국가금융정보화체계, 화상회의체계, 3차원화상처리체계, 비루스방역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많은 파제를 연구완성하여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 도입하였다.

특히 연구소에서 개발한 얼굴 및 객체식별, 얼굴인식, 나이, 성별식별과 같은 화상처리전용프로그램묶음인 화상처리체계를 비롯한 적지 않은 제품들은 국내에서 가장 앞선 기술로 인정되었다. 이 화상처리체계는 국내에는 물론 다른 나라에도 많이 도입되고있다.

그리고 IP전화봉사체계 『불』, 통합통신프로그램



탐구에 열정을 바쳐간다.

『별』, 비루스방역프로그램 『클락새』, 상업경영관리지원체계 『부홍』, 내장형초고속 병렬수자신호처리체계, 영상회의체계 『락원』을 비롯한 이곳 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들은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를 비롯한 여러 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국가콘솔웨어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었다.

오늘 연구소의 모든 일꾼들

지능형광고물현시체계의 일부



과 연구사들은 지난 기간에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정보기술의 보다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 지식경제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리고 정보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 실천에서 은을 내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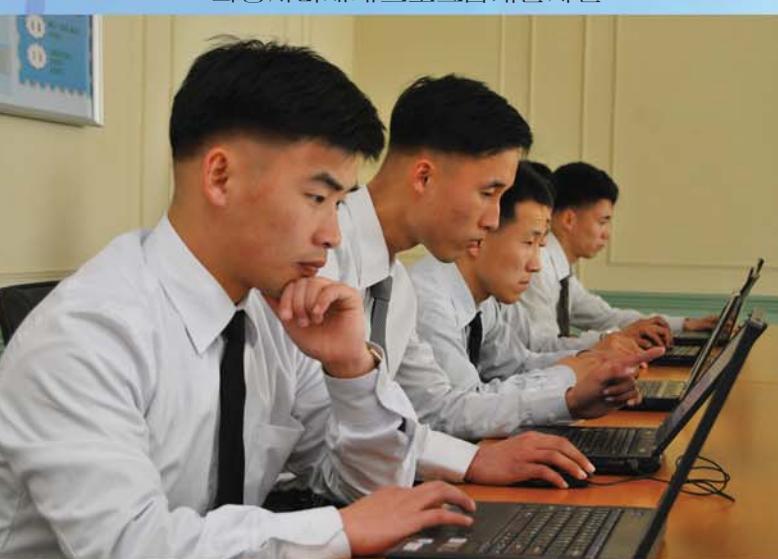
—우리 식대로 사고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실천함으로써 경쟁력있고 쓸모있는 최첨단 콘솔웨어 및 하드웨어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여 부강조국건설의 참된 애국자가 되자.

이곳

연구사들은 이미 개발한 제품들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개신하

는 모든 연구사들은 이런 애국의 마음을 안고 오늘도 최첨단돌파의 주로를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지식경제의 주인들

지식경제시대, 두뇌전의 시대인 오늘 과학기술은 어디서나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도 누구나 지식형의 인간, 기술형의 인간이 될것을 지향하고 있다.

평양시 락랑구역에 있는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공장에서는 이름그대로 비닐박막, 수지판, 수지통, 포장용주머니, 1회용밥곽 등 각종 수지일용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공장의 규모는 비록 크지 않아도 질좋은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작아도 큰 공장》, 《능력있는 공장》 등으로 소문을 내고 있다.

사실 공장은 1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생산실적이 그리 높지 못하였다. 로동자들의 작업환경이며 문화후생시설들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 이곳 일군들은 생각이 많았다.

무엇을 주선으로 들어줘고나가겠는가, 이에 따라 생산장성의 지름길이 결정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그 열쇠를 기술혁신에서 찾았다. 정보산업시대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설비의 현대화,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하여야만 적은 로력과

기술혁신을 앞세워나가는 일군들과 로동자들



자재, 설비로 보다 큰 실적을 올릴수 있었다.

그 실현을 위해 온 공장이 부글부글 끓었다. 공장의 부서별, 작업반별, 기대별로 기술혁신경쟁이 벌어졌다. 종업원들은 누구라 없이 조금이라도 공장의 현대화추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휴식시간마다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며 창의고안을 위한 사색을 이어나갔다.

그 앞장에는 강남익, 김경수, 강성필을 비롯한 일군들이 서있었다. 그들은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해 종업원들속에서 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인민대학습당과 중앙과학기술통보사,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한덕수령양경공업대학과의 긴밀한 협계밀에 수지일용품생산과 관련한 세계적인 발전추세와 기계공학, 전자공학, 컴퓨터응용분야에 대한 학습에 선차적인 힘을 넣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 일단 현장에서 창안된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크든 작든 소홀히 대함이 없이 공장적인 집체적토의를 진행하여 하나하나 실

천에 구현해나가도록 하였다.

그 나날 공장에서 이룩한 성과는 대단히 크다. 여러동의 생산건물을 새롭게 건설, 3면접합절단기와 전자조각기 등 20여대의 현대적인 설비들을 장비, 제품의 가지수를 늘리고 질을 훨씬 개선...

지난해에는 50mm팽창압출기를 비롯한 식료품포장용주머니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의 통합자동화생산체계를 완성하였으며 지난 시기에는 많은 품을 들여 구입하던 첨가제를 자체의 힘으로 개발, 도입하여 큰 익을 내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대형사출기를 비롯한 중요설비들의 성능을 보다 높여 제품의 가지수를 더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그 나날에 지배인은 박사가 되고 많은 종업원들이 창의고안명수, 발명가로 성장하였다.

기사장 강성필은 말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뜻이 따로 있고 노동자들이 일할 뜻이 따로 있다는 식의 관점을 가지고 일 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공장의 일군들, 기술자들, 노동자들 모두가 지식경제시대의 주인이다.

우리 공장은 앞으로도 기술의 힘, 지식의 힘으로 증산의 길을 힘차게 걸을것이다. 하여 나라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나가겠다.》

지금 공장에서는 원격강의실, 전자도서실, 과



도서실에서 기술서적
을 탐독하고 있다.

학기술보급실 등을 갖춘 종합적인 건물을 올해 안으로 완공하여 기술적진보의 보폭을 더 크게 내짚으려 하고 있다.

글 본사기자 조선일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전호에서 계속)

그런데 사태는 내가 예상한 것 보다 크게 번지였다.

안창호는 쪽지의 글을 한참동안 내려다보고나서 사회자에게 무엇인가 몇마디 물었다. 후날 손정도에게서 말을 들으니 그날 안창호는 사회자에게 질문쪽지에 김성주라는 서명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아는가고 물었다고 한다.

그처럼 도도한 기상을 가지고 장내를 쥐락펴락하던 안창호의 연설이 그만 김이 빠져버리였다. 안창호는 조금전까지 일사천리로 펼쳐나가던 강연을 성급하게 마무리짓고 연탁앞에서 황황히 물러섰다.

연사는 매우 심각하게 질문을 받아들인 것 같았다. 좀 자주이나 받으라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안창호 자신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강연을 중도에서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이었다.

실망한 청중은 도산선생이 왜 갑자기 저렇게 주접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출입문쪽으로 밀려나갔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길림독군서에서 수백명의 현병과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강연회장에 불시에 달려들어 30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체포했던 것이다. 연사인 안창호는 물론, 현묵관, 김리대, 리관련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자들이 한꺼번에 무리로 불잡혀 경찰청에 구금되었다.

이 대검거사건을 조종한 것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구니도모였다. 안창호의 길림도착과 때를 같이하여 봉천에 나타난 구니도모는 중국현병사령관 양우정에게 수백명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길림에 모였으니 이를 체포해달라

고 요청하였다.

양우정의 명령에 따라 길림독군서의 경찰들과 현병들은 구니도모의 조종밀에 조선사람들의 가택을 수색하는 한편 대동공창에 달려들어 류례없는 대검거작전을 벌리였다.

우리는 안창호가 비록 강연은 잘하지 못했지만 적들이 그도 포함하여 수백명의 조선사람들을 불들어간데 대해서는 치솟는 격분을 누를수 없었다. 더구나 서면질문끝에 강연이 중단되고 강연이 중단되는 동시에 안창호가 체포되어가니 나로서는 이런 혼례반응의 책임이 마치 서면질문에라도 있는듯 한 느낌까지 들어 피로운 생각을 털어버릴수가 없었다.

중국 동북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장작림군벌은 《미쓰야협정》으로 일본과 손을 잡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반일독립운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었다. 이 협정은 만주지방에서 조선민족해방투쟁의 근원을 없애기 위한 악질적인 협정이었다.

이 협정에 의하여 조선인애국자들을 체포하는 졸개들에게는 상금까지 주었다. 중국의 일부 반동관헌들은 상금을 타먹으려고 허위밀고까지 하였다.

대동공창에서 벌어진 집단적인 검거소동도 역시 장작림군벌이 일제의 사족을 받아서 감행한 반동적인 폭압행위였다.

우리는 즉시에 《ㄷ. ㄷ》성원들의 회의를 열고 불잡힌 사

람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대책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그 결음으로 독립운동자들을 찾아가 그들과도 체포된 사람들을 빼내올 방법을 의논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넋을 잃고 앓아있을 뿐 속수무책이였다.

독립운동자들은 물론,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과 지어는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청년

학생들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안창호의 리론에 대하여 서면질문까지 들이댄 사람들이 왜 이번에는 그를 구원하지 못해 그렇게 애를 쓰느냐는것이였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안창호의 사상을 문제시하는것이지 안창호란 인간자체를 반대하는것은 아니다. 안창호도 조선사람이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지사인데 어떻게 그를 구원하지 않을수 있겠는가고 설복하였다. 나는 그때 수난당한 조선민족은 어려운 때를 당하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에 내세웠다.

내가 안창호의 강연을 반박한 것은 그들이 사대주의적이고 민족허무주의적이며 개량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조국을 광복하는 성스러운 싸움에 더 적극적으로 투신해주기를 바랐기때문이였다. 우리가 민족주의자들과 사상투쟁을 한것은 그들을 타도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반일의 기치 아래 뛰어세우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안창호석방을 위한 군중집회가 있은 다음 길림의 담벽과 전주대들에는 《중국경찰이 근거없이 조선동포들을 불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놓고 박해한다.》, 《중국관헌은 일제의 간계에 속지 말라!》, 《감옥에 갇힌 조선동포들을 하루빨리 석방하라!》는 내용의 뼈라와 격문들이 나붙었다.

우리는 중국의 각 신문사들도 글을 써보내여 사회여론을 환기시켰다. 길림시내의 청소년들과 군중들은 매일과 같이 독군서에 몰려가 감금된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웨쳤다. 어떤 날에는 독군서앞에서 시위도 벌리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중국의 반동군벌이 체포해간 조선의 독립운동자들을 일제의 손에 넘겨주지 못하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였다.

독군서는 군중의 압력에 못이

겨 20여일만에 안창호를 비롯한 구속자전원을 석방하였다. 긴장된 투쟁끝에 얻어진 안창호의 석방은 나를 높시 기쁘게 하였다.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 동료들의 곁으로 돌아온 안창호를 만나려고 독립운동자들을 찾아갔다. 나는 그가 질문에 답겨진 우리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를 은근히 기대하였다.

그러나 안창호는 감옥에서 나오자 바람으로 총총히 길림땅을 떠나가버렸다. 그가 어떤 심정으로 상해에 돌아갔는지 똑똑히 알 수 없지만 나는 그가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기분으로 길림을 떠났을것이라고 확신한다. 애국자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모든 시련을 감당해낸 그후의 그의 생활이 그것을 증명해주었다.

안창호가 길림을 떠난후 나는 한번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10여년이 지난후 우리가 백두산쪽에서 무장투쟁을 할 때 안창호는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최후를 마쳤다.

나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평생을 민족의 계몽과 단합에 바쳐온 안창호가 독립의 날을 보지 못하고 일찌기 떠나간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별스럽게 맺어졌던 안창호와의 인연이 그것으로 완전히 끊어져버린 것은 아니었다. 안창호는 갖지만 그의 너동생 안신호가 해방후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였다.

해방후 조국에 개선한 나는 국내에서 활동하던 애국지사들을 통하여 안창호의 누이동생이 남포방면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당시 남포지구에서는 김경석동무가 파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안신호를 찾을데 대한 파업을 주었다. 며칠후 남포에서 안신호를 찾았다는 통보가 올라왔다. 김경석동무에게 전화로 그녀자의 경향이

어떤가고 물으니 그는 밤낮 성경책만 끼고다니는 녀자인데 독실한 신자같다고만 대답하였다.

나는 안신호가 이름난 애국렬사의 동생이기 때문에 종교를 믿어도 애국심만은 있을것이니 당적영향을 주면서 잘 이끌어보라고 김경석동무에게 말하였다.

김경석동무는 알겠다고 대답하면서도 별로 시답지 않아하였다. 신자들이라면 덮어놓고 색안경을 끼고보는 때여서 우리가 그렇게 루루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을 경원시하는 폐단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

몇달후 김경석동무는 나에게 안신호가 입당하였다는것과 그가 성경책속에 당증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새 조선건설에 헌신분투하고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안창호의 애국흔은 결코 지하에만 있는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안신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독립인사로서의 안창호의 과란많은 일생을 생각했고 생전에 그가 민족을 위해 바친로고를 더듬어보며 감개무량해지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일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김구는 남북련설회의때 북반부에 들어와 안신호를 만나보고 놀랐다. 공산주의자들이 상해림시정부 거물의 누이동생을 중앙녀맹부위원장으로 등용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다. 안신호는 그의 젊은 시절의 애인이며 약혼녀였다.

안신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곧 안창호에 대한 믿음이였다. 그것은 또한 리념이나 신앙을 초월하여 민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속에서 애국애족의 뉴대에 의해 혈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독립운동의 모든 선배들에 대한 우리의 레절이며 인사이기도 하였다.

(끝)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올해 6월 19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지니시고 조선로동당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그이께서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수많은 나날에 있었던 몇가지 이야기를 아래에싣는다.

처음으로 공개하신 사실

주체69(1980)년 2월 16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만나시여 자신께서는 오늘 동무들에게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던 문제에 대하여 말하여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였다.

나는 1966년 5월부터 1969년 7월까지 맑스와 엥겔스, 레닌의 중요저서를 전면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재평가하였다. 내가 분석평가한 맑스와 엥겔스, 레닌의 중요저서는 맑스의 《자본론》5개 분책을 한권으로 계산하여 모두 31권이다. 그에 대하여서는 그때 맑스와 엥겔스, 레닌의 중요저서를 연구분석하고 재평가하는 사업에 참가하였던 일군도 잘 알고있을것이다.

나는 그때 맑스와 엥겔스, 레닌이 쓴 철학저서와 경제학저서를 비롯한 거의 모든 중요저서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많은 책을 읽었다. 어떤 때

는 간단한 표현을 놓고도 며칠 동안 생각하였으며 어떤 표현은 몇달동안 생각해보았다. ...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그때에는 정말 눈에 피발이 서는줄도 모르고 책을 읽었고 목이 쉬도록 토론하였습니다. 참으로 잊을수 없는 독학 연구기간이었습니다.》

어느날 일군들은 서재에서 며칠후에 분석하게 될 어느 한 고전을 열중해 읽고있었다. 그런데 낮부터 우뢰가 울고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져내렸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그런듯이 앉으시여 책장만 넘기시였다.

그이께서 책에서 눈길을 떼신것은 어둠이 깃든 저녁무렵이였다. 그이께서는 창밖을 내다보시다가 무척 놀라시였다.

《이 비가 언제부터 내렸습니까?》

《낮부터 내렸습니다. 우뢰질도 요란했습니다.》

《그렇소? 나는 책을 보는데 집중하다보니 비가 낮부터 내리면서 우뢰가 요란하게 운것도 전혀 모르고있었습니다. 오늘은 소득이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오후에 이 책 한권을 다 보았습니다.》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중대사들을 처리하시는 그 분망한 가운데서도 이처럼 3년남짓한 기간에 로동계급의 장구한 100년사상을 전면적으로 분석평가하신데 기초하여 머지 않아 위대한 김일성주의를 세상에 선포하실 사상리론적준비를 완성하신것이였다.

선군의 길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93(2004)년 8월 어느날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우리는 지난 10년동안에 고난과 시련도 많이 겪었고 인생 체험도 많이 하였다고 하시면서 준엄했던 그 10년을 가슴뜨겁게 추억하시였다.

《사실 나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을때 처음에는 눈앞이 깜깜하고 몸을 가눌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추억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대결이냐 굴종이냐 하는 판거리갈림길에서 나는 사회주의를 교수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지키자면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것을 결심하고 단호히 선군의 길을 택하였다.

나는 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과 전군업적에 토대하여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기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군대를 강화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였다. 지난 10년동안 나는 언제나 인민군인들과 함께 있었다. ...

인민군대를 틀어쥐고 선군정치를 하여 준엄한 조국수호전,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루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진군로를 열어놓았다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에 의하여 마련된 강력한 군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정치에서 자주적대를 강하게 세우고 온갖 외세의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물리치며 그 무엇에도 구

애되지 않고 모든 일을 마음먹은대로, 우리의 배짱대로 내밀고있다고, 우리가 군사를 훌시하고 군대를 강화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망한지 오랫을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부터 생각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인가 일군들에게 한 해외동포가 그이께 삼가 올린 모포를 보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에게 자신께서 쓰시던 모포를 덮어주신지도 벌써 50년이 되여오는데 우리는 아직 인민들에게 고급모포를 주지 못하여 마음이 괴롭다고 하시면서 이런 모포를 만들어 인민들에게 안겨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 모포를 가지고 가서 견본으로 참고하면서 생산해보라고 이르시였다.

해외동포들의 지성을 생각해서라도 그 모포만은 장군님께서 사용하실것을 간청드리는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아직도 이런 모포를 보지도 못했는데 혼자서 덮은들 마음이 편하겠는가고, 우리가 이런 모포를 꽝꽝 만들어 인민들에게 안겨줄 때 마음놓고 덮겠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그 모포가 견본으로 되여 오늘은 《마안산》이라는 상표를 달고 생산되어 온 나라 가정들에 차례지고있다.

깨우쳐주신 분조관리제의 우월성

언제인가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어느 한 강냉이밭머리에 차를 세우시였다.

차에서 내리시여 농장원들에게 다가가신 장군님께서는 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농사형편을 알아보시였다.

너무도 소탈하게 대해주시는 그이의 인품에 끌려 농장원들은 저저마다 자기들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농장원들의 말에서 이곳 농장의 실태를 대뜸 헤아려보신 그이께서는 문득 누구에게라 없이 분조관리제를 실시하면 강냉이를 정보당 얼마나 낼것 같은 가고 물으시였다.

순간 누구도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갓 실시된 분조관리제를 두고 토지와 농작물이 교착되어 일하기 좋다고만 여겼지 그 우월성에 대하여서까지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그들이였던것이다.

농장원들을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분조관리제는 농산작업을 다 장악하고 지도할수 있으며 모든 농장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농산작업을 자각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한다고 이야기하시였다.

농촌의 실정에 대하여, 새로나온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에 대하여 알기 쉽게 깨우쳐주시는 그이의 이야기에 농장원들은 저도모르게 끌려들었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분조관리제는 규모가 작기때문에 농장원들사이에 성격과 취미를 잘 알게 한다고, 그리하여 농장원들 속에서 이해가 두터워지며 서로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새기며 농장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분조관리제가 얼마나 우

월하며 그대로 일해나갈 때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 민족끼리정신을 심어주시며

주체89(2000)년 6월 30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재미동포 너류기자인 문명자를 만나주시였다. 현지지도의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그를 만나주신 그이께서는 건강상태에 대하여 세심히 물어주시며 동포애의 정을 부어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북남수뇌상봉이 가지는 역사적의의에 대하여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번에 북남력사상 처음으로 수뇌상봉을 실현하고 북남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북과 남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루하는데서 사변적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민족지상의 파업이라고,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우리가 시종일관 주장해온것이 자주문제이고 또 이번 북남공동선언에도 조선의 통일은 조선민족이 주인이 되여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한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시면서 북남공동선언에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 조항이 기본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생산장성의 비결

평양탄광기계공장은 서부지구 탄광들에 채탄설비들을 만들어보내주는 공장이다.

창립 당시 고장난 채탄설비들이나 수리하던 공장이 지금은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고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척척 만들어내는 기업소로 되었다.

공장기사장 리병주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 공장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파업을 판철하기 위한 일념으로 부글부글끓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과학기술은 강성국

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에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생산장성의 비결을 과학기술발전에서 찾고 기술혁신의 불길을 일으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1월에도 긴급대상설비를 성과적으로 생산해냄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공장은 지난 시기 휴대용반도체직류용접기를 창안제작하여 용접작업에서 전력소모를 줄이였으며 제28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1등을 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힘을 얻은 이 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광선모사절단기의 CNC화를 실현한것을 비롯하여 설비의 현대화를 자체의 힘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로동자들과 힘을 합쳐 유연축사락기를 제작하여 주물제품생산에서 난문제의 하나로 나서던 모래털기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식의 새로운 유압기밀고무재료를 연구개발하여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유압기밀바킹을 자체로 생산하여 유압설비생산에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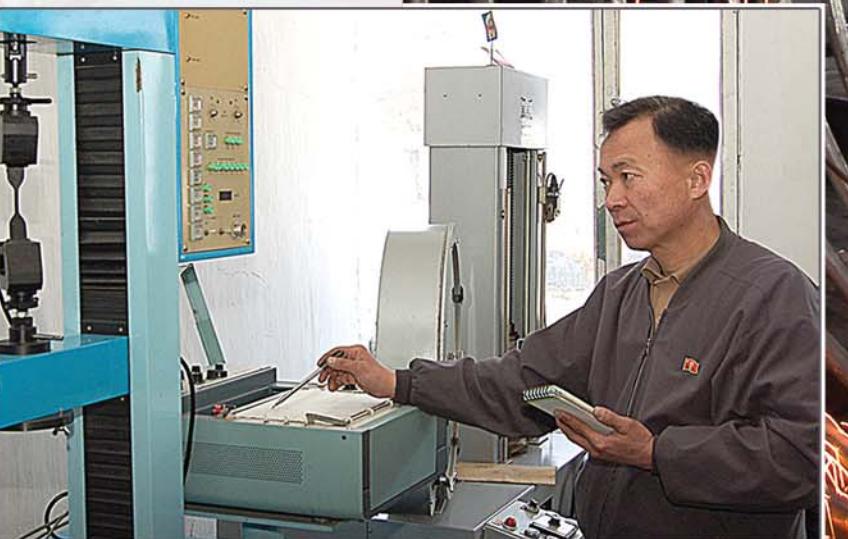
극 기여하고있다. 그들이 창안한 유압기밀고무재료는 전국의 유압설비제작단위들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기구, 제판, 공무 등 그 어느 직장, 어느 일터에서나 기술혁신으로 더 높은 생산성과를 이루하려는 이 공장로동계급의 열의를 볼수 있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로동자들



● 많 은 비 단 실 ●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은 조국인민들의 입는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뜻을 맡고있는 경공업공장들중의 하나이다.

한폭의 아름다운 비단필이 흘러내리는듯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을 앞에 끼고있는 공장은 비단실 생산지로 국내외에 유명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의 여러 견직공장과 대외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있는 《금강산》표 비단실은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여주고있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그 판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잠재력과 내부에 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신년사의 구절구절은 이곳 로동계급의 가슴에 애국심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높은 생산성과만이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하는 길임을 자각하고있는 그들은 생산의 량과 질을 더

욱 늘이고 높이기 위해 서로의 지혜와 노력을 합쳐가고있다.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일군들은 로동자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기 위한 사업을 선행시켜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혁신자축하모임과 속보 등을 통하여 로력혁신자들을 적극 내세워줌으로써 누구나 그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우도록 하고있다.

공장에서 발간하는 속보 《비단실》의 주필 강미애는 로력혁신자대렬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부쩍 늘어 났다고 하면서 그들을 소개하는데 지면이 모자랄 정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공장로동계급은 해방후 평양제사공장로동자들은 인민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일을 하고있다고 하시며 제사공장로동자들이 일을 잘하면 그만큼 인민들에게 비단천이 더 많이 차례지게 된다고 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회주의문명국 건설구상을 비단실로 밟들어 갈 일념안고 혁

신을 일으키고있다고 말하였다.

조사공들인 김정향, 박일주, 박옥주, 신윤미, 림향, 윤영미는 지난 1월말에 벌써 올해 1. 4분기 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혁신자처녀들이다. 그들만이 아닌 공장의 모든 로동자들은 한m의 비단실을 뽑아도 그 질을 최대로 높이면서 생산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손을 다그치고있다.

일군들은 로동자들의 교대간 공정이 잘 맞물려 지도록 로력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있으며 기술일군들이 직접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설비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진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기술일군들은 생산성파여부가 자기들에게 달려 있다는 자각을 안고 생산현장들에 내려가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있다. 그들은 또한 조사공들에 대한 기술학습도 정상적으로 조직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이 공장로동자, 기술자들은 시간을 아끼가며 지식을 배우고 생산현장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다

져가고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계급의 애국의 열정에 의해 쉬임없이 이어져나오는 아름다운 비단실은 조국인민들의 생활에 더 큰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련조기를 만가동시키고 있다.



합격품의 비중
을 높이기 위해



표준규격
대로

원격강의실에서



금니화를 발전시킨 미술가

저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조선화 창작에서 일정하게 관록도 있는데 50이 넘은 나이에 화약도 없는 일을 시작하겠는가고 하였다.

사실 그들의 우려와 염려는 무리가 아니었다. 수백여년간이나 중

았다.

이렇게 그는 15년동안 시대의 미학적 요구에 맞는 새로운 금니화재료와 창작방법을 체계화하였으며 주체102(2013)년 9월에는 예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민족적바탕과 전통을 떠난 그 무엇도 자기의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주체100(2011)년 중국에서 진행된 어느 한 미술전람회때 사람들앞에서 황병호가 한 말이다. 이 말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으며 그의 인생길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였다.

그는 주체53(1964)년 평양미술대학에 입학할 당시 유화를 해야 미술가로서 수준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유화를 전공하려고 하였다.

『백두산천지』

지되였던 금니화를 새롭게 창작하는것도 문제였지만 재료로부터 창작방법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 나날 황병호는 인민대학습당과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사회과학원과 해

당 부문의 연구소

들

지어

교구려고

분들까지

돌아보

며

자료를

연구하

였으며

모사실험

만도

수백수천번

이나

진행하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이였다.

아침에 눈을 뜨니 온통 모든것이 빨갛게 보이였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들은 눈동공 안에서 출혈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일을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영원히 실명될수 있다고 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길에서 물러서지 않

바로 그려한 때 그는 문학예술부문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고수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가르치심에 접하게 되였다.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려는 결심은 그를 그토록 유혹하던 유화로부터 조선화에로 방향을 바꾸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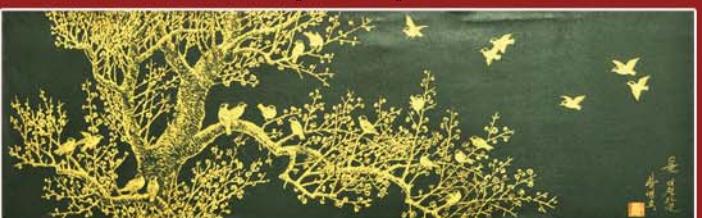
대학을 졸업하고 창작기판에서 미술가로서 조선화를 창작하면서 황병호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미술유산인 조선화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알게 되였다.

더우기 조선화에서 선묘법이 중요한 기법의 하나이며 선을 위주로 하여 필치를 힘있게 살려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긴 그는 조선화 창작에서 견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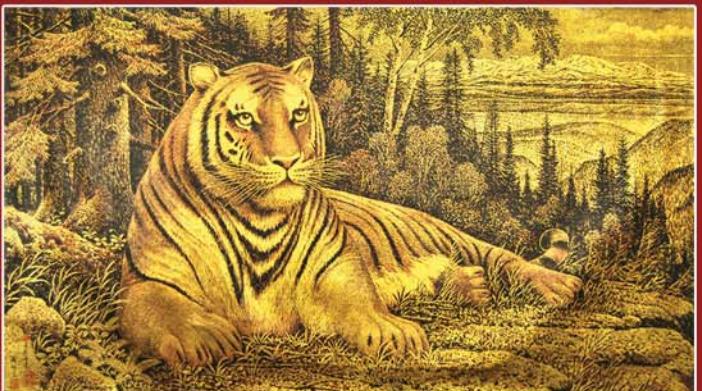
황병호가
창작한
금니화 작품들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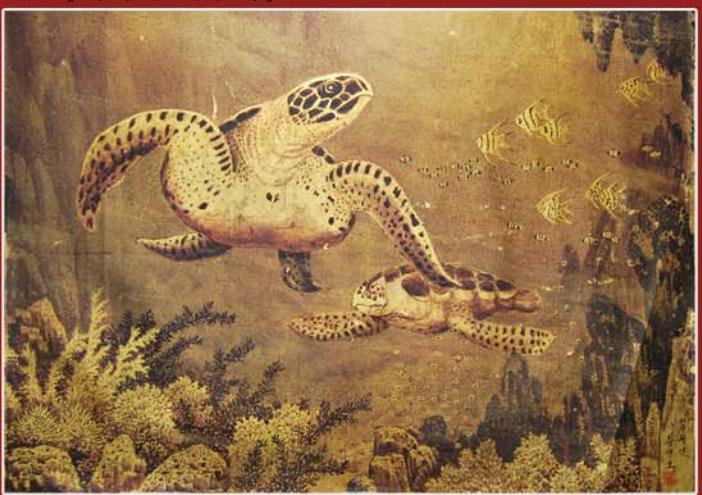
《감풍년》



《봄》



《범》



《바다의 거북이》

야 할 원칙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게 되였다.

하나의 작품 지어 하나의 선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국의 방방곡곡 못 가본 곳이 없었으며 그 나날에 그는 정열가, 투지있는 사람으로 불리웠다.

그의 아버지는 해방전 황병호가 태여나는 것도 보지 못하고 한많은 세상을 떠났다.

어린시절 제사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품었던 생각은 기계기사가 되여 어머니의 힘든 일을 돋고싶은것이였다.

황병호의 말을 빈다면 그려 하면 그가 오늘은 관록있는 미술가로, 박사로까지 된것은 전적으로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가 있었기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말하였다.

『사람들은 제가 금니화를 창작한것도 단순히 우수한 민족회화의 대나 이어놓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려종이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는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닭나무껍질을 원료로 만든 이 종이를 참지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이 종이가 가장 우수한 종이라는 뜻을 담고있다.

고려종이에는 닥종이(일명 백추지), 견지, 청자지(혹은 아청지), 문창호지, 표지, 황지, 불경지, 금분지 등 여러가지가 있다.

참지는 걸모양이 부드러우면서도 우아하다.

고려시기이전부터 명성을 떨쳐온 백추지와 견지는 그 이름자체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눈같이 희고 매끈하며 비단처럼 부드럽고 우아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참지는 아래웃면과 가로세로방향에서 섬유들이 다같이 고르롭게 배열되어있으며 발달된 립체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참지의 고유한 생산방법, 특히 훌륭한 기법에 기인된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서예물과 조선화는 참지에 쓰거나 그려왔다.

참지는 걸모양이 부드럽고 우아할뿐아니라 강인하다. 그것은 참지를 접었다가 재빨리 펴면 마치도 가야금줄을 텅길 때와 같은 독특한 소리가 나는것을 통하여 알



젊은 미술가들의 창작에 깊은 관심을 돌린다.

우수한 전통과 유산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품이 있어야 더욱 빛을 뿌릴수 있으며 바로 그처럼 위대한 품을 화폭에 담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것은 우리 시대 미술가들이 지녀야 할 기본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은 저에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식

민족의 자랑 고려종이(참지)

한 종이형성층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참지는 자연적인 조건에서도 천여년 또는 그이상 보존할수 있는데 그에 대하여서는 고구려시기와 고려시기 그리고 그이후 시기의 종이유물들이 잘 증명하여준다.

1894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조선서지학』에는 『조선의 책들에 쓰인 종이는 어느 시대의것을 물론하고 부드럽고 탄탄한 특성을 가지고있으므로 상당히 훗은 종이로 만든 옛날책들도 오랜 세월을 견디어왔다. 이것은 절간이나 유럽의 장서고들에서 발견되는 고려시기의 책들에 누런 빛이 조금도 없고 좀이 도무지 먹지 않은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오늘도 우리 나라에서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종이생산기법을 그대로 이어 여러가지 종류의 참지를 생산하고있다. 이 종이는 문현종이, 그림종이, 유골보관지, 탈, 모자이크판밀종이, 인형제작, 연, 국보적인 책들을 수복하는 등 여러 부문에 펴용되고있다.

수기

영원한 해양의 빛발속에

『미래를 사랑하라!』, 나는 조국에서 널리 불리워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이 깊어지군 한다. 한생 교육부문에서 일해온 나여서 그런지 이 말과 함께 새겨진 많은 추억이 가슴을 설레이게 한다.

나는 지금도 주체82(1993)년 8월의 나날을 잊을수 없다.

당시 교육위원회 일군으로 사업하던 나는 평양에서 해당 부문 일군들과 함께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종합공연준비를 다그치고 있었다. 그러면 어느날 량강도 삼지연군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유치원어린이들이 공연을 하게 된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백두산이 보이는 하늘아래 첫 동네에서 그것도 자나깨나 뵙고싶던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하게 된 아이들은 너무 좋아 환성을 올리였다. 우리 일군들도 격정에 휩싸였다.

우리는 공연조를 편성하여 삼지연군에로의 길에 올랐다. 그런데 그것이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될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많은 어린이들 가운데서 절반인원만 현지에 도착시켰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안색을 흐리시였다. 그러시고는 함께 오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서운해하겠는가고 하시며 평양에 남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오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그 아이들을 위해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되였다.

그때 우리 일군들은 아이들의 얼굴에 한점의 그늘이라도 질세라 그들모두를 한품에 안아주시던 수령님을 우러르며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그이는 참으로 한없이 숭고한 미래사랑을 지니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돌이켜보면 그이께서는 나라를 찾기 위한 간고한 싸움의 길에서도 마안산밀영의 아이들을 찾으시여 하나밖에 없던 자신의 모포를 앓고있는 아이들에게 덮어주시였고 해방된 조국에서 새해를 맞이 할 때에는 어린이들에게 시까지 써보내주시였다.

『새벽하늘에
샛별같이 빛나는
새 나라 조선의 800만어린이여!
새해와 한가지로 새복을 받아
굳세고 씩씩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무궁한 새 조선의 새 일군 되소서.』

북조선립시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으로 아이들의 연필문제를 토의하도록 하시고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도 열어주신 그이의 후대사랑의 이야기는 이루 다 전할수 없다.

바로 그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어져 이 땅에 아름다운 화폭들을 수놓았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손길아래 1990년대 나라의 사정이 그토록 어려웠던 시기에도 학교들에서는 배움의 글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매일 콩우유차들이 아이들을 찾아 달리였다. 그 나날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가 태여나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원수님들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며 후대들을 따뜻이 보살펴주고 계신다.

두해전 6월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축하연설도 해주시고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도 실시하도록 해주신 그이이시다.

그이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경상유치원, 평양시묘향산동산소년단야영소와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 등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고 찾으시며 크나큰 사랑을 거듭거듭 베풀어주시였다. 그 사랑속에 조국의 북부 두메산골로부터 서남전선 최남단의 최대열점지역에 있는 작은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아이들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며 앞날의 역군들로 자라고 있다.

정녕 만물을 자래우는 해빛이 영원하듯이 우리 조국에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력사는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평양외과대학 석명희

어 땅에 올려라



얼마전
우리는
나라의
품속에서
건강하고
명랑하게
자라나고 있는
원아들이

보고싶어 평양시육아원을 찾았다.

따스한 해빛이 비치는 운동장에서 즐겁게 뛰노는 어린이들 속에 묻혀있던 원장 김정희는 우리와 마주하였다. 이윽도록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지 못하고 있던 그는 『지렇게 보다싶이 우리 육아원의 모든 원아들은 지난 2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후부터는 더 활기애너치고 씩씩해졌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1층 첫방에 들어섰다.

그 방에는 젖먹이 어린이들 일곱 명이 있었다. 두 명의 보육원들이 어린이들을 차례로 품에 안

춤노래시간



그 방에서는 세살정도 되어보이는 어린이들이

고 젖병을 물리고 있었다. 우유를 배불리 먹은 후 포근한 모포에 싸여 샐쭉샐쭉 웃음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눈길을 뗄 수 없는 우리에게 보육원 리영순은 말하였다.

『이애들은 정말 복동이들입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큰 사랑과 행복을 받아안으며 자라는가를 언제면 알 수 있겠는지…』

감격에 젖어 있는 그의 목소리는 간간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허물없이 방바닥에 앉으시여 바닥온도도 가슴해보시고 모포 속에 손을 넣어 애기의 발도 만져보시였다고 하며 아이들이 멋있다고, 영양상태가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몸이 좋은 한 어린이를 가리켜 뚱보라고 불러주며 만족해하시던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어서 빨리 커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오실 때에는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드리자고 조용히 속삭이며 애기들을 다독여 주었다.

우리는 옆방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그 방에서는 세살정도 되어보이는 어린이들이

운동실에서



한창 점심밥을 먹고 있었다.

우리는 기름기가 도는 흰쌀밥과 김이 오르는 따끈한 오리고기국, 낙지볶음과 닭알튀기, 김치 등을 맛있게 먹고 있는 어린이들을 잠시나마 방해한 것 같아 방을 나섰다.

원장은 어린이들이 점심밥을 먹은 후에는 낮잠을 자는 시간인데 그동안 주방을 돌아보자고 하였다. 주방은 언제 식사준비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결하였다. 료리사들은 다음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벽에 걸린 식사차림표 앞에 섰다. 그것만 보아도 육아원에서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맞게 영양학적으로 잘 먹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2층에 있는 실내놀이장으로 갔다. 그네며 텁성판, 미끄럼대 등 동심에 맞는 운동기재들을 갖춘 놀이장이었다. 우리는 원아들이 운동놀이 시간마다 이곳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육아원의 보육원들이 원아들에게 정을 기울여 오는 나날에 꽂혀난 가지 가지의 이야기를 감동깊이 들었다.

운동실에서



세쌍둥이들

오후 세시가 되자 원아들이 잠에서 깨어났다.

우리는 놀이장곁에 있는 세쌍둥이 교양반(나라에서는 세쌍둥이들을 네 살이 될 때까지 육아원에서 키워주고 있다.)에 들리였다.

벌써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서는 보육원들이 총각애들의 옷도 바로 입혀주고 처녀애들의 머리에 『코스모스』 머리방울도 달아주고 있었다.

잠시 후 아름다운 색동옷을 차려입은 세쌍둥이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해빛같은 탁아소 우리 탁아소
김정은원수님 찾아오셨죠
라 찾아오셨죠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듯이 이곳 원아들의 밝은 얼굴에서 우리는 내나라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어버이로 모신 하나의 대가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게 되었다.

이곳 원장은 말하였다.

『후대들을 끌없이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우리 나라에는 부모잃은 어린이는 있을 수 있어도 부모의 사랑을 떠난 어린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을 모르는 저 어린이들의 밝은 얼굴에 넘쳐나는 행복감, 아직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에 더 많은 원아들이지만 그들도 이제 크면 따뜻한 사랑이 넘쳐나는 이 집에서 조국의 미래를 떠받들고 나갈 기둥감들로 자라나면 오늘을 되새겨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새참시간이 되였다. 매 어린이들의 앞에는 효모빵과 사파, 콩산유와 영양액이 담긴 다반들이 놓여졌다.

우리는 맛있게 먹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뒤에 남기며 육아원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소년태권도를 통하여 몸을 튼튼히 한다.

체육활동에 힘을 넣는다

평양의 통일거리에 있는 2중영예의 붉은기 락랑구역 충성소학교에서 소년단원들이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일단 하루공부가 끝나면 운동장과 여러 체육소조실에서는 색색의 운동복을 입은 학생들로 흥성이고 있다. 그 가운데는 탁구를 치느라 여념이 없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운동장이 좁다 하게 뛰어다니며 축구를 하는 학생들도 있다. 너희들은 그들대로 소조실에서 체육무용을 익히느라 열성이 이만저만 아니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곳 소년단원들은 누구라 없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튼튼한 몸은 나라의 보배라는 생각이 간직되어 있다. 그 마음을 안고 그들은 지덕체를 갖춘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기 위해, 앞으로 나라의 역군이 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기간 학습을 잘하는 것은 물론 체육활동에 힘을 넣어 정일봉상전국청소년

년 학생체육경기대회 소학교부문경기(축구, 탁구)들에서 련이어 우승한 그들이다. 최근년간에는 김일성상계판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어린이장에 거듭 출연하여 공연의 성과적보장에 이바지하였다.

지덕체를 갖춘 밑음직한 소년단원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는 이 학교학생들의 모습에는 교원들의 노력이 많이 깃들어 있다.

학교에서는 소년단원들이 어릴 때부터 체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체육활동에 차각적으로 적극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를 위해 체육수업과 파외체육활동에 대한 지도방법과 내용에 많은 품을 넣고 있다. 학급담임교원들은 매일 정상적으로 소년률동체조와 소년태권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년단원들이 한가지 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취미와 소질에 맞는 여러 종목의 소조들에 잘 참가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



축구기초동작들을 완성해나간다.

주고 있다.

소년단원들은 그 과정에 체력뿐 아니라 높은 집단력과 단결력, 체육기술을 소유해나가고 있다.

오늘 이 학교의 많은 졸업생들은 평양국제축구학교를 비롯한 체육선수후비양성기지들에 추천되어 자기들의 재능을 보다 훌륭히 꽂고자 고 있다.



탁구소조실에서



체육무용작품들을 완성하고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류경구강병원에서

얼마전 우리는 류경구강병원을 찾았다.

류경구강병원은 평양의 문수지구에 자리잡고있다.

우리가 병원에 거의 다달을무렵 손녀인듯 한 처녀애를 데리고 흥얼흥얼 노래하며 발걸음도 가벼이 마주오는 한 로인이 있었다. 직업적인 호기심에서 말을 걸어봤더니 로인은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홍2동 78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류준구는 간밤에 이발때문에 아침을 설치고 가까이에 있는 류경구강병원으로 갔었다.

구강렌트겐과



다목적구강촬영기앞에 선 로인



병원접수파에 이르니 간호원 황옥향이 새 병력서를 만들어 가지고 로인을 구강진찰실로 안내해주었다.

이곳 장미영과장은 류준구로서는 처음보는 구강종합치료기에 앉히더니 구강내시경을 켜놓고 침착하면서도 재빠른 손놀림으로 구강진찰을 하였다.

얼마후 과장은 병원걸음을 몇번 더해야 할것 같아며 환자를 보존치료파로 안내해주었다. 그 과정에 류준구가 이자 치료를 받을 때 리용한 설비의 이름을 묻자 구강내시경이 달린 구강종합치료기라고 대주면서 과장은 병원에 이런 현대적치료설비가 수십대나 된다고 말해주었다.

다목적구강촬영기앞에 선 로인



어린이구강치료

보존치료파는 2층에 있었다. 그곳에는 방금 본것과 같은 구강종합치료기들이 가득차있었다. 그리고 매 치료기들사이에는 치료에 편리하게 간막이까지 설치되어있었다.

바로 여기에서 의사 리혜련이 그를 반겨맞아주며 치료를 시작하였다.

먼저 엊저녁 자리를 꾀롭힌 이발치료가 진행되었다. 치료를 얼마나 정성껏 했던지 아픔이 대번에 가셔졌다. 뒤따라 이돌도 제거하였다. 그리고 치료를 더 받아야 하겠다며 다음날 다시 오라는 당부를 받았으니 병원으로 향하는 로인의 걸음이 자연히 흥겹고 가벼워져 병원에 꾸려진 어린이놀이장을 구경시키자고 손녀애까지 데리고 오는 길이였다. ...

우리일행은 병원으로 들어섰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구면인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우동 11인민반에서 사는 조종수로인을 만났다. 그는 나이가 드니 병원걸음이 잦아진다며 이 병원이 생겨 세번째인데 그사이에 구강검진과 이돌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고 오늘은 구강렌트겐파에서 다목적구강촬영기로 이발촬영까지 하였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그 기계동작이 하도 신통해 이런것은 얼마나 하는가고 한용호과장선생에게 묻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보존치료파와 구강렌트겐파, 치료기들에 각종 놀이감들이 걸려있는 소아파, 보철파, 치료예방파 등을 돌아보았다.

치료예방파 과장 오광룡은 병원에 깃든 사연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차례 이곳을 찾으시여 몸소 설계, 시공 등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해주시며 우리 병원이 구



치료에
정성을
다한다.

강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현대적이며 최신식의 서비스를 갖춘 종합적인 구강치료기지로 일떠서도록 은정깊은 사랑을 돌려주시였습니다.

지난 3월 21일 또다시 우리 병원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원에 사람들이 많은것을 보니 의료봉사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류경구강병원을 건설하기를 잘했다고 기뻐하시였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은혜로운 사회주의제도 아래 치료비란 말을 모르고 만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글 본사기자 윤원선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어린이놀이장



가풍과 애국

훌륭한 가풍은 자식들의 마음의 키를 자래 운다.

얼마전 우리는 평양시 중구역에서 사는 고광진의 가정을 통하여 이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의학대학원 부원장으로 사업하는 고광진에게는 두 자식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교원인 딸 고미령과 같은 대학의 학생인 아들 고일경이다. 대학적으로 실력높은 교원으로, 전도가 유망한 학생으로 소문난 그들의 성장의 자축자축에는 바로 훌륭한 가풍의 숨결이 속속들이 슴배여 있다. 달리 말하여 고광진과 그의 안해 강리혜(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과학연구부 부부장)는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 참으로 많은 품을 들이였다.

그들은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고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찾아 하도록 늘 보살피며 교양하였다. 그리고 휴식일이면 자식들과 함께 애국렬사릉과 3대혁명전시관(우리 인민이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집대성한 곳) 등을 찾아가 애국심과 함께 앞날의 포부를 간직하게 하였다.

그 나날 그들이 제일 관심을 돌린것은 자신의 모습이였다. 부모의 모습은 자식들의 생활의 거울이기 때문이였다.

상식

《고려사》

《고려사》는 1451년에 김종서(1390—1453년), 정린지(1396—1478년) 등이 기전체로 편찬한 고려봉건왕조의 역사책으로서 모두 139권이다.

《고려사》편찬에 리용된 기본사

료는 당시까지 남아있던 《고려실록》과 국사계통의 사료들인 《편년강목》, 《금경록》, 《사략》 등이다.

《고려사》는 세가 46권, 지 39권, 혈전 50권, 년표 2권, 목록 2

권으로 되어있다. 그중에서 기본내용을 이루는 부분은 세가, 혈전, 지이다.

《고려사》의 세가는 고려 34대 왕 가운데서 우왕, 창왕 두 왕대를 제외한 32대 왕을 순서대로 놓고 그들의 통치년간에 일어난 사변들을 네월일에 따라 기록한 연대기로 이루어졌다.

세가에는 12세기 말엽 농민전쟁과

성이 복잡하고 갈래가 많은것으로 하여 종합적인 사전을 하나 편찬하자면 방대한 자료가 필요되었다. 실지 그와 개발조성원들이 우리나라 고전의 학편람들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도서 등에서 발췌한 자료만 하여도 30여개의 지함을 이루었다.

한편 그는 한가지 약초에 대한 자료를 실어 도 후날 독자들로 하여금 깊이있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리고 거기에 삽입되는 모든 사진 한장한장도 생동하게 찍느라 중앙식물원이며 대성산 지어 지방의 먼곳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다. 그렇게 열두달, 탐구와 사색을 기울여 노력한 끝에 마침내 음성 및 동화상자료를 결합한 의학다매체전자사전 《보감》이 만들어지게 되였다. 이것이 보급된후 학계는 물론 일반대중의 반향도 대단히 컸다. 그것으로 하여 그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기쁨을 드

강리혜



애구를 비롯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인민들의 투쟁이 많이 서술되어 있다.

혈전은 왕실과 봉건관료들을 비롯한 900여명의 인물들을 14개의 부류로 나누어 취급한 전기이다.

《고려사》의 지는 봉건통치기구와 그 연혁, 기구정원을 밝힌 《백판지》, 관리의 선발과 등용질차를 밝힌 《선거지》, 경제관계를 수록한 《식화지》, 군

사관계를 서술한 《병지》를 비롯하여 《형지》, 《례지》, 《여복지》, 《지리지》, 《악지》, 《천문지》, 《력지》, 《오행지》 등 12개의 독립적인 지들로 구성되어있다.

책에는 또한 고려봉건국가의 정치구조, 경제생활, 국방상태를 비롯한 여러 분야가 꼭넓게 수록되어 있으며 인민대중이 창조적으로 동속에서 이룩한 고귀한 과학문화의 성과들이 비

교적 풍부하게 실려있다.

《고려사》는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로 존재하였던 고려봉건국가의 역사와 중국, 일본, 몽골 등 동방의 일부 나라들에 대한 자료, 너진족을 비롯한 일련의 종족들에 대한 자료가 상당한 정도로 실려있는것으로 하여 10—14세기 동방사연구에서 중요한 사료로 되고있다.



오늘의 모습에서 래일을 보다

날에 날마다 조국땅에는 변혁의 새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조국땅을 찾아 오랜만에 오는 동포들이건, 자주 오는 동포들이건 한해 한해가 달라지는 조국의 모습에서 받게 되는 느낌은 실로 격동적이다.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엄준식 동포의 조카 엄길송이 살고 있는 평양시 룽성구역도 변화되는 조국의 한 축도라고 말할 수 있다.
...

평양의 련못동에서 평성방향으로 얼마간 가느라면 대동강의 지류인 합장강을 따라 펼쳐진 룽성구역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온다.

우리의 눈에 유난히 먼저 안겨온 것은 평양온실농장의 온실들이였다.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공급하기 위하여 봉성벌의 넓은 부지에 꾸려진(주체 60(1971)년) 이곳 온실남새생산기지에서는 오이, 도마도를 비롯한 온실남새들이 계절을 앞당기며 자라고 있었다.

온실농장을 지나 합장강이 흐르는 다리우에서 봉성구역전경을 사진기렌즈에 담던 우리는 이곳 인민위원회 일꾼인 리상일을 만났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디 가나 마찬가지로 여기 봉성땅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기에 보이는 봉성고기가공 공장을 비롯하여 봉성베아링 공장, 봉성목재가공공장 등 여러 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일떠서기 시작한 것은 전후부

터였습니다.

더우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 50(1961)년 9월 친히 이곳을 찾으시여 도시건설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현대적인 도시로 빨리 꾸려지도록 끊임없이 보실펴주시여 봉성구역이 오늘과 같이 수도의 위성도시로 변모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북동—남서방향으로 기본거리가 형성되고 양옆으로 구색이 맞게 꾸려진 다층살림집들과 아담한 문화주택들을 정겹게 바라보았다.

그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진짜 봉성땅의 전변된 모습을 보려면 새로 일떠선 거리에 가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이끌었다.

그와 함께 이른 곳은 지난해



은하1유치원

공화국창건 65돐을 맞으며 완공된 은하과학자거리였다.

1 000여세대에 달하는 21개 호동의 다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16개 장소에 꾸려진 아동공원, 소공원들, 각종 편의봉사시설들로 이루어진 은하과학자거리를 가리키며 리상일은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아시다실이 이 거리는 지난 해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되었습니다.』

한적 하던 벌판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과학기술중시사상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구상에 의하여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새 거리가 일떠섰습니다.』

세칸, 네칸, 다섯칸으로 이루어진 살림집들마다에는 현대적인 가구를 비롯하여 살림살이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그흔히 갖추어져있었다. 그 어느 집에 들려보아도 모두의 얼굴들마다에

는 새집을 받아안은 행복넘친 모습이 어려있었고 이처럼 훌륭한 집을 마련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가장 열렬한 감사와 보답의 마음이 넘쳐있었다.

우리는 엄준식동포의 조카 엄길송가정에도 들려보았다.

평범한 연구사에 불과한 자기에게도 지난해 9월 이런 훌륭한 집이 차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는 말하였다.

『우리가 원래 살던 살림집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구상에 의하여 지난 90년대말에 꾸려진 9. 9절거리에 일떠선 좋은 집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좋은 새집을 받고보니 지금도 꿈만 같아 내 집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군 합니다.

아마 지난해 6월 우리 집에 왔던 카나다에서 살고 있는 큰아버지가 다시 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의 집을 나선 우리에게는

교육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갖추어진 초, 고급중학교와 소학교들의 교실들에서 울려나오는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혜택 아래 조국을 떠나고나갈 미래의 역군들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랑랑한 배움의 글소리도 들려왔다.

여러가지 유희기구들과 운동기구들이 갖추어진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노는 은하1유치원과 실내물놀이장에서 좋아라 웃으며 물장구치는 은하타아소의 어린이들을 뒤에 두고 우리는 구역 안의 곳곳을 돌아보았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흐르는 합장강에 비껴있는 봉성땅의 오늘의 모습에서 더욱 훌륭히 변모될 래일을 그려보며 강기슭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대설
사진 본사기자 김 평





중국 길림성 길림시 룽담구 강북 토성자 158동 120호
황진생누님 앞

보답의 일념뿐입니다

보고싶은 누님, 그동안 건강
하십니까.

누님이 조국에 왔던 때가 엊
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넘었
습니다.

이번에 잡지 『금수강산』을
통하여 누님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조국에 왔던 누
님파의 상봉이 어제일처럼 눈에
선합니다.

그때 누님은 이렇게 말하였
습니다.

『동생, 우리 집안이 대를 두
고 받아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
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한지도 잊지 말아야 하
네. 나이가 들었다고 절대로
죄하지 말고 청춘의 열정과 높
은 정신력을 가지고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네.』

그 말을 새기느라니 나에게는
비록 몸은 이국땅에 있어도 마
음은 언제나 조국에 두고 살아
오신 아버님과 누님들의 한생이

누이의 모습을 그려보는 우리 가정입니다.



돌이켜집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
의 지도를 받으며 투쟁한 아버지를
잊지 않으시고 생의 마지막까지
나라를 위해 한몸바쳐 싸우도록 떠
밀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
과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맏누이
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해주
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은
멀리에 있는 자식일수록 더 마음쓰
는 친부모의 사랑그대로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둘째누이를
비롯한 우리 형제들에게 하늘같
은 은정을 돌려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뜨겁고 다심합니까.

세월이 흐르면 사람의 정도
멀어진다고 하지만 우리 집안에
돌려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사랑
과 믿음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부모형제들이 더욱 그리워진다
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라고
다심한 사랑과 정을 기울
여주던 누님의 모습이 눈
에 선합니다. 색다른 것 이
하나 생겨도 먼저 주고 맛있는
음식이 생겨도 먼저 떠네
여주던 누님 이었습니다.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
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조직한
영화관람에 가는 누님을 기어코
따라가겠다고 해서 누님을 난처
하게 했던 일을 말입니다. 그러
던 나도 이제는 손주들을 거느
린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편을 듣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 우리 집
안이 받아안은 은덕이 너무도
꿈만 같기 때문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
정으로 우리 아들 석철이와 맏
손녀 해현이가 4월 1일부터
김일성고급당학교와 강반석혁
명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기에 한개 단위의 사업을
맡은 나는 예순이 훨씬 넘었지
만 혁명의 지휘성원, 인민의 충
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
하여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하고 있
습니다.

누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께서 우리들에게 돌려주신 사랑
과 믿음은 인민을 위해 헌신하
며 살게 하는 자양분이며 밑거
름입니다.

누님은 해외에서, 나는 조국
에서 맡은 일을 더 잘하여 꼭
원수님께 기쁨을 드립시다. 누님
과 매부가 건강하여 사업에서 보
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여 조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다음번에도
매부와 함께 조국에 오십시오.

평양시 락랑구역 승리1동
36인민반 동생 황재청 올림
참, 생각납

—인상기—

마음속에 새겨진 만경대

이번 고국방문의 나날에 나는 여려곳을 돌아보았다. 고국에 처음 온 나로서는 너무도 감동이 커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이번에 제일 깊은 감동을 받은 곳은 만경대고향집이었다. 만경대는 말그대로 참으로 아름다웠다. 맑고 깨끗한 공기와 수려한 산세, 나무 한 그루, 꽃 한포기 지어 풀 한포기마저 한없이 소중히 여겨졌다. 거기에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물결 또한 생각을 깊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만경대고향집에서 내가 들은 이야기는 생각할수록 눈물을 자아냈다.

김일성주석님의 일가문들은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으시려고 모두 만경대의 자그마한 초가집의 사립문을 나서시였다.

그러나 그 길에서 아버지, 어머니, 삼촌, 동생 모두가 희생되시였다.

나라가 해방된 다음 조국개선연설을 하신 날 저녁에야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고향집을 찾으시였다. 그때 할머니는 두팔로 주석님을 부여안고 너무 기쁘시여 『너를 보니 한생에 쌓인 시름이 다

풀리는구나! … 그런데 …
아버지, 어머니는 어데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느냐. … 같이 오면 못쓴다
더냐! …》라고 하시면서
너무도 일찌기 세상을 떠
나간 자제분들을 생각하시었다고 한다.

강사의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참고참았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나라의 해방을 위해 주석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치시였다.

주석님께서 피로써 찾아주신 고국이여서 만경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감회도 그렇듯 깊을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의 마음속에도 만경대는 깊이 자리잡고 있다.

나는 앞으로 고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동포들에게도 고국의 모습을 더 잘 알려주어 그들도 언제나 고국을 마음에 안고 살도록 하겠다.

우즈베키스딴 신 이리나

행복한가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워만졌다.

해외에 살고있어도 조국의 인민들과 꼭같이 사
랑해주고 믿어주고 이끌어주는 은혜로운 품속에
서 우리 동포들은 외로움을 모르고 보람듯이 살
고있다.

조국에 대한 궁지와 사랑의 감정은 저절로 생겨
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아래 나날이 변모되는 조국
에 대한 궁지와 사랑은 나뿐이 아닌 해외동포들도
두의 가슴속에 언제나 자리잡고 있다.

조국의 통성변영을 위
해,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많다.

나는 부강조국건설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찾아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 나가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장춘
시지부 지부장 지순복



제16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찾은 해외동포들

그리움과 흡모심의 뜨거운 분출

지난 4월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던 재일조선인예술단 홍령월동포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배우인 그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4월 평양에서 불렀던 가요 《조국을 노래하네》를 이번 축전무대에서 다시 불렀다. 때없이 추억에 잠길 때면 조국의 사랑속에 삶을 빛내여온 지나온 나날이 떠오르고 그와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끊 견디게 그리워 평양의 하늘가를 바라보군 한다는 그의 노래는 조국인민들



재중조선인 예술단의 공연중에서



의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무릇 노래는 짐작의 언어라고 한다. 그가 부른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흡모심의 분출이었다.

돌이켜보면 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재일동포들이 있었다. 나라없던 지난 세월 이역땅에서 망국노의 설음을 당해야만 했던 재일동포들에게 해방의 환희를 안겨주신 그이께서는 그들을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 당당히 내세워주시였다. 그리고 이역에 살면서도 서로서로 단합되어 애국, 애족의 참된 삶을 빛내여나가도록 굳건한 총련조직을 무어주시였고 총련이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가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조국의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1950년대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공장을 한두개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국가예산에 새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라는 항목까지 내오도록 하신 그이이시였다. 그 사랑속에 재일동포들은 주체46(1957)년 4월 8일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은 그날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는 동포들



재일조선인예술단의 공연중에서
공연을 앞두고...



재오스트랄리아조선
인독창가의 공연



국제고려인
통일련 합회
예술단의 공
연중에서





길림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2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보고대회가 진행되었다.

로부터 올해(4월 현재)
까지 160차에 걸쳐 일
본돈으로 470여억₩의 많은 자금을 받아안게 되었다.

그이께서 재일동포들을 위해 베푸신 사랑은
이루 다 해아릴수 없다. 하기에 그이의 품속에
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국통일상 수상자, 인민배우, 박사 등이 되어
값높은 삶을 누려오는 재일동포들은 해마다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태양절(4월 15일)이 오면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터치하고 있다.

올해 태양절에 즈음하여서만도 재일동포들은
품들여 준비한 노래와 춤을 안고 조국으로 달려와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를 보다 이채롭게
장식하였고 정성껏 퍼운 많은 불멸의 꽃
김일성화를 평양에서 열린 제16차 김일성화축전장에 전시하였다.

그런가 하면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
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2돐
경축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를 가지였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사적이
깃들어있는 길림육문중학교와 약왕묘
를 찾은 동포들



흡모의 마음어린 꽃바구니를…

며 성대한 음악회를 열고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수령님 같으신 분 세상에 없습니다》 등의 노래들을 격조높이 부르고 또 불렀다.

이러한 화폭은 비단 재일동포들속에서만 펼쳐진것이 아니다. 둘러보면 세계각지의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태양절과 더불어 자기들의 마음을 표시하였다.

중국, 로씨야, 미국,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해외각지에 있는 동포조직들과 동포들은 태양절을 경축하는 해외동포대표단, 예술단들을 뭇고 조국에 찾아와 조국인민들과 함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는 물론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석명손, 범민련독립국가협동체지역 의장 조윤해,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기판지 신문 《통일》 주필 석미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모란봉예술단 단장 김미숙을 비롯한 많은 동포들은 나라와 민족



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디에 살건 한풀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제16차 김일성화축전장에 그이를 끌없이 경모하는 자기들의 마음을 담아 활짝 퍼운 김일성화를 내놓았다.

뿐만아니라 재일, 재중, 재로, 재미, 재오스트랄리아의 동포예술인들은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 흡모의 노래를 안고 지경과 지경을 넘어



불멸의 꽃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회가 진행
되었다.



태양절을 경축하여 료녕지구 협회보고회도 진행되었다.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장으로 달려왔다. 그들 가운데는 축전에 자주 참가하여 노래를 잘 불러 조국인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중국에서 사는 최경호, 황해월동포들도 있고 수령님에 대한 겨레의 절절한 그리움을 편현악으로 훌륭히 펼치군 하는 미국에서 사는 우륵교향악단 단장 리준무동포도 있다. 그리고 축전때마다 아름다운 률동으로 무대를 장식하곤 하는 국제교련인통일련합회예술단의 김옥희, 태애순동포들을 비롯한 무용배우들도 있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많은 동포들이 조국에 축전과 축하편지, 성의껏 마련한 꽃바구니들을 보내왔다. 로씨야 모스크바에서 사는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심동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한 길에서 전사한 남편과 자기의 가정을 위해 베푸신 수령님의 사랑을 평생토록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이의 영생을 기원하여 꽃바구니를

조국에 보내여왔다.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려는 해외동포들의 마음은 로씨야에서 재로동포들의 태양절경축모임이 진행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절경축 재우즈베키스탄동포들의 제21차 조선민족예술축전이 진행된것을 비롯하여 해외각지에서도 뜨겁게 분출되었다.

중국에서만 놓고보아도 태양절경축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는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보고대회를 가지였으며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사진 및 도서전시회, 경축연회, 체육경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심양과 연길, 단동, 장춘, 할빈 등 중국의 각지에서 모여온 동포예술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가요 《수령님 밤이 퍽 깊었습니다》, 《노래하라 만경대 갈림길이여》, 《대를 이어 총성

태양절경축 사진 및 도서전시회장을 돌아보는 동포들



노래 《인민의 환희》를 배우는 동포들

을 다하렵니다》와 같은 수령칭송의 노래들로 뜻깊은 노래모임을 펼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성원들과 료녕지구협회 성원들도 베이징과 심양에서 보고회, 사진 및 도서전시회, 경축연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며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애국, 애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굳은 마음들을 피력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최은복의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온 겨례의 절절한 냄원에 받들려 어둡던 삼천리강산에

동포들은 태양절을 경축하여 음악회와 체육경기를 진행하였다.



《백두—한나》편집에 열중하고 있는 동포들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통운의 날이며 인류의 앞길에 새시대의 력명이 밝아온 경사의 날입니다. …

우리 해외동포들은 …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수령으로, 어버이로 모시고 살아온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대원수님들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고수하며 자자손손 길이 빛내여갈것입니다.》

마음은 숨길수 없는 법이다. 이것은 해외동포



들 누구나의 가슴속에서 우리나라 오는 한결같은 심정이기도 하다. 한것은 그들 모두가 한평생 애국, 애족을 삶과 투쟁의 본령으로 삼으시고 해외동포들을 민족의 한식솔로 여기시며 삶을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들의 자애로운 어버이, 겨례의 영원한 어버이로 심장속에 높이 모시고 있기때문이다.

글 본사기자 흥정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최원철

그리움은 세기를 이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것이 있다. 바로 해외에 살고있는 동포들의 마음—조국에 대한 그리움이다.

돌이켜보면 그 마음은 해외동포들이 걸어온 길과 더불어 하많은 사연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로씨야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의 역사가 이것을 응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조선 사람들이 로씨야땅에 정착하여 생활해오는지도 어언 150년이 되였다. 1864년(조선봉건왕조시기의 말엽) 당시 봉건의 구속과 착취 그리고 외세의 침략책동이 우심해지는 속에서 살길찾아 두만강을 건너 아라사(오늘의 로씨야)로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그들이였다. 그후에는 조선을 강압적으로,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의 탄압과 랙탈로 하여 또다시 정든 고향과 리별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조선사람들이였다. 그렇게 선조의 땅을 떠나 생겨난 그리움은 년년이 동포들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다.

그러나 그 그리움은 외로움과 설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족의 어버이인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령도밑에 나라가 해방됨으로써 비로소 동포들의 가슴에 삶의 희망이 움트게 되였다. 그후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나라의 국력이 강해지고 민족의 존엄이 우뚝 높아지면서부터 그 그리움은 자기 조국, 자기 고국에 대한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 사랑과 헌신의 감정으로 승화되게 되였다.

그 감정을 안고 조선동포들은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끼르기즈스딴고려인통일련합회 등 합법적인 해외교포조직들을 뜯고 그를 통하여 자기들의 삶을 빛내이고있다. 그들은 동포조직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동포들, 특히 새 세대 동포청년들이 동포조직의 두리에 단합되어 민족의 냇을 간직하고 살아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진행하고있다.

한편 조국의 뜻깊은 명절들이면 사진전시회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를 부르고있는 까자흐스딴의 조선동포가정



고국의 감독의 지도아래 태권도훈련을 진행
하는 끼르기즈스딴 조선동포청년들

영화감상회,
예술공연과 같

은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을 진행하며 통일애국의 마음을 다지고 조국을 자주 방문하면서 조국인민들과 숨결을 맞추며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애국운동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올해 2월에 만도 로씨야원동고려인통일련합회는 나호드까에서 조국의 현실을 소개하는 잡지, 화첩들로 전시회를 진행하여 애국으로 마음을 끓이였고 우즈베키스딴 조선문화전통《로인》협회의 일군들과 동포들, 동포예술인들은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를 진행하고 《우리는 하나》,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즈베키스딴 따슈엔뜨주에서 진행된 조선민족예술축전의 일부



비롯한 조국의 노래들을 부르며 광명성절을 뜻
깊게 경축하였다.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회장 장준정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국은 우리 삶의 등대이다. 우리는 비록 몸은 이역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을 그리며 산다. 이것은 나만이 아닌 우리 재로씨야동포들, 해외동포들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해외동포들의 조국에 대한 그리움, 이것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고있다.

본사기자 흥정혁

고국의 바다가에서 휴식의 한때
를 보내고있는 재로씨야동포들



신비한 나라 조선

(전호에서 계속)

분노할 일이 없다

지구상 곳곳에서 반정부시위가 벌어지는 것도 레사로운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 인종문제를 놓고 흑인들의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는 때 남조선에서는 대규모 초불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1만명, 3만명, 10만명…

《정부》가 보도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격노한 목소리는 전파되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터치고 있다.

편견을 가진 어떤 나라들에서는 공화국에 이러한 《자유》가 없는 것처럼 여론화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 신앙의 자유 등을 가진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나라를 받

들고 사회를 위해 헌신하자는 목소리는 크게 울려도 서방에서 일상사로 되고 있는 사회제도에 대한 울분과 저주의 목소리는 들려 오지 않는다. 즉 분노할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등록금, 치료비, 집값, 세금…

우에서 서술했듯이 공화국에서는 세계 그 어디나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어두운 그늘이 없고 태양의 빛발파도 같은 인민적 시책만이 차고 넘친다. 주민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 돌려지는 은혜여서 공화국의 시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자기들의 삶의 요람을 가꾸어주는 조국을 어머니라 호칭하고 있다.

그 조국은 창건 첫 시기부터 자기의 성격을 인민정권으로 정하였고 모든 시책들을 인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우고 실현하였으며 전체 인민이 서로 도우면서 화목하게 사는 하나의 대가정, 일심단결을 이루어놓았다.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

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일 뿐더러 도의이기도 하다. 공화국인민들이 어머니 조국에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반정부시위의 원인을 명쾌하게 말할 수 있다. 《승자만이 모든 것을 가진다.》는 악의 윤리에 대한 불만과 1%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라고 말이다.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이거하야!》라는 구호가 모든 활동에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공화국은 시간이 갈수록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세계와 더 큰 차이를 이루게 될 것이다.

공화국정부가 가꾼 정신적 풍요로움 속에 심신을 정화시키는 맛도 이를 데 없는데 공화국의 목표—사회주의 부귀영화를 상상해보는 맛은 더욱 달다.

(끝)
재미동포 리경실

상식과 일은
식전에

한때 사람들은 식후에 인차 파일을 먹으면 음식물 속의 단백질, 지방질, 당류 등 영양물질을 소화흡수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어느 한 학자는 식후에 인차 파일을 먹는데 습관되며 점차 소화기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음식물은 몸안에 들어간 다음 1~2시간의 소화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천천히 배설된다. 그런데 식후에 인차 파일을 먹으면 위에 들어간 음식물에 막히어 파일이 잘 배설되지 못한다. 파일은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만 위에서 쉽게 발효되어 가스를 내보내므로 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수록 배에 바람이 쉽게 차며 지어 설사하거나 변비가 오는 경우도 있다.

한 전문가는 사람이 익은 음식물을 먹게 되

면 몸안에서 백혈구가 급속히 많아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것은 마치 몸이 병균의 침습을 받았을 때 백혈구가 많아지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해로운 반응과정이 오래동안 지속되면 면역기능이 파괴되어 병균이 침습하거나 암이 생길 기회를 주게 된다.

그런데 파일과 같은 생음식물을 먼저 먹고 식사를 하게 되면 백혈구가 급속히 증가되는 현상이 없이 면역계통이 계속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다.

이것은 병을 예방하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리를 가진다.

결국 식전에 파일을 먹으면 건강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직 통일의 힘길로

에 한생을 다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때부터 민족의 술기와 넋을 안고 붓을 들었던 그의 손에는 통일의 원쑤들을 단죄 규탄하는 연설문들이 들리우군 하였다.

어느 해인가 해외에서 통일파 관련하여 연설을 하게 되었을 때 리희세동포는 연설문을 수정하라는 반통일세력의 압력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통일세력을 분렬화해시키려는 반통일세력의 회유기만책 동앞에서 자기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그는 서유럽 지역의 많은 해외동포들을 통일의 길에 하나하나 묶어세워나갔다. 리희세동포는 프랑스에서 개인미술전람회를 열고 조선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조선화들을 전시하여 해외동포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높여주기도 하였다. 그는 동포대중과의 사업도 그림을 그리듯 하나하나 섬세하게 진행하였다. 동포들과 정을 나누고 밀어주며 그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바치도록 이끌었다.

오늘도 리희세동포는 통일운동의 길에 끊임없이 서 있다. 그는 조국통일운동은 그 어떤 지역이나 한두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함께 해나가야 할 거족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오늘도 리희세동포는 동포들 모두가 떨쳐일어나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리도록 그들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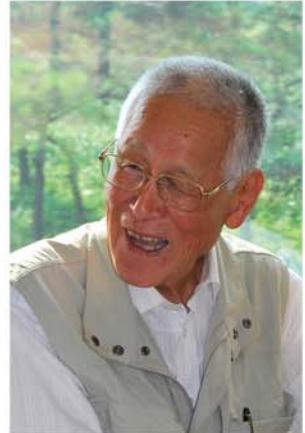
본사기자 연 옥

유모아

공통점

기자가 한 여성에게 《부인, 당신은 남편과 20여년을 같이 생활하면서 공통점이라고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부인은 한참 생각하다가 《기자선생, 나와 남편과의 유일한 공통점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결혼했다는 것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리희세

천리마조선의 새 역사 (2)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을 실현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인민들은 한사람같이 일떠섰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승리와 성과가 이룩되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에 따라 주체63(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위대한 수령님의 후계자로 높이 추대함으로써 혁명위업의 계승문제, 령도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게 되었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1971—1976년)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70일전투가 주체63(1974)년 10월 하순부터 힘있게 벌어져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6개년계획목표를 앞당겨 수행하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그해 계획도 넘쳐하였다. 결과 주체63(1974)년도의 공업생산은 전해에 비해 17. 2%로 늘어나게 되었다. 6개년계획기간 나라의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는데 주체65(1976)년의 공업생산은 주체59(1970)년에 비해 2. 5배로 늘어났다.

6개년계획을 완수한데 이어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년)의 실현을 위한 80년대속도창조운

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계획기간 공업총생산액은 2. 2배로 늘어났고 공업생산의 평균장성속도는 12. 2%에 달하였으며 이 나날에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었다. 제2차 7개년계획이 빛나게 수행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새 전망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대상건설이 힘있게 다그쳐져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과 서해갑문, 태천발전소,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북부철길건설 등 전례없이 큰 규모의 중요대상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평양시에 창광거리, 문수거리, 안상택거리, 광복거리 등 현대적인 거리들이 일떠섰으며 인민대학습당, 만경대학생소년궁전, 5월1일경기장, 창광원 등 수많은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물들이 훌륭하게 건설되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경제재난과 봉쇄책동을 짓부시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90년대속도창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년)의 빛나는 수행은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하였다.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주체적문학예술의 면모를 더 훌륭히 갖출수 있게 하였으며 보건, 체육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게 하였다.

이 시기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 였으며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옹호고수하여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변함없이 지켜나가도록 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광란적인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79(1990)년 1월 1일에 하신 신년사와 이해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근본원칙과 투쟁파업을 밝혀주시였다.

이 시기 조선로동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묶어세워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또한 전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군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고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으며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이 철저히 확립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미제국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벌린 핵소동은 공화국으로 하여금 핵무기전과방지조약에서 탈퇴하게 하였고 3차에 걸치는 조미회담에서 조미기본합의문을 채택하고 미국대통령의 담보서한도 받아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루되게 하고 주체82(1993)년 10월부터는 북남최고위급의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여러차례나 이루어져 주체83(1994)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진행되었다.

이 나날에 국제정세도 유리하게 전변되었다. 1980년대에만 하여도 여러 국제회의들이 성대히 진행되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대성황리에 펼쳐졌으며 주체71(1982)년부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전통적으로 진행되어 자주, 평화, 친선을 위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추동하였다.

이렇듯 공화국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은 그 어느것이거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한 령도와 결부되어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애국위업은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더욱 빛을 뿌릴 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명훈

—가랑잎으로 눈가리고 아웅한다
가랑잎으로 눈만 가리면 자기판에
는 몸을 다 감춘줄로 알고있는 모양
이라는 뜻으로 뻔히 속이 들어다보이
는것을 감추려고 어리석은짓을 하는
것을 비웃어이르는 말.

참고: ① 가랑잎으로 눈가리기
② 눈감고 아웅한다

—등잔불에 콩닥이며겠다
하는짓이 어리석고 옹졸하여 보기
에도 답답한 일만 하는자의 행동을
이르는 말.

참고: 남의 밭에 감발

력사인물

언어학자 최세진

최세진은 16세기 전반기의 뛰어난 언어학자이며 저술가이다.

중인신분의 역판(통역원)집안에서 태여났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한어(중국어)를 배웠는데 그의 지극한 열성은 어학적재능을 활짝 꽂피우게 하였다. 그는 통역이나 번역에 머무르지 않고 한어의 과학적기초를 닦았을뿐아니라 조선말과 리두글자도 깊이 연구하였으며 일찍부터 역판이 되여 다른 나라에 드나들었다.

이와 같이 최세진은 『훈민정음』의 과학적리론과 인민대중의 생활적실천을 훌륭히 결부시켜 우리 말을 실용적으로 체계화하고 정리한 뛰어난 조선어학자였다.

『훈몽자회』에서는 또한 매개한자의 음과 뜻을 우리 글로 표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뜻을 보충설명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당시의 상용한자 3 660자의 통용음이 적혀있어 한자의 조선음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로 되며 그 뜻을 새길수 있는 고유어휘 1 700여개와 한자어휘 400여개를 수록한것으로 하여 조선어어휘연구에서도 귀중한 사료적가치를 가진다.

이밖에도 그는 『운희옥편』, 『리문집람』, 『녀훈어해』, 『소학편몽』 등도 집필하여 우리나라의 언어학발전과 문학발전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그는 이 책의 첫머리에서 『훈민정음』의 매 글자의 차례를 고

치고 처음으로 이름을 정하였으며 어울려쓰는 방법, 받침쓰는 방법 등을 요령있게 설명하였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과 같이 글자차례와 당시까지는 없었던 글자의 이름도 이 책에서 처음으로 나왔으며 그것은 거의 그대로 현재까지 쓰여오고있다.

이와 같이 최세진은 『훈민정음』의 과학적리론과 인민대중의 생활적실천을 훌륭히 결부시켜 우리 말을 실용적으로 체계화하고 정리한 뛰어난 조선어학자였다.

『훈몽자회』에서는 또한 매개한자의 음과 뜻을 우리 글로 표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뜻을 보충설명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당시의 상용한자 3 660자의 통용음이 적혀있어 한자의 조선음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로 되며 그 뜻을 새길수 있는 고유어휘 1 700여개와 한자어휘 400여개를 수록한것으로 하여 조선어어휘연구에서도 귀중한 사료적가치를 가진다.

이밖에도 그는 『운희옥편』, 『리문집람』, 『녀훈어해』, 『소학편몽』 등도 집필하여 우리나라의 언어학발전과 문학발전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 * *

조선속담 (어리석음)

제 스스로 자기자신을 망신시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비겨이르는 말.

참고: ① 제 발등에 오줌누기
② 제 갓에 침뱉기

—아이 끓대니까 종자닭을 잡는다

① 남의 칭찬에 그것이 어떤것인지도 분간 못하고 그에 만족하여 아까운것을 모르고 어리석게 주책없이 마음을 쓰는 경우에 이르는 말.

② 너자들은 자기의 아이가 꽃다
고 하는것을 제일 좋아한다는것을 이르는 말.

자기에게 어울리는 조선치마저고리를 지어입자면



구나 즐겨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월향전시관을 찾은 해외동포녀성들은 아름다운 조선치마저고리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저저마다 한두벌씩은 주문하군 한답니다. 얼마전에는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영국의 한녀성까지도 우리가 지어준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슬기롭고 아름다운 조선민족의 유구한 역사속에 련연히 이어오는 고상한 옷차림문화에 대하여 생각하느라니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독자여러분속에 계시는 여성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조선치마저고리가 있는지, 혹 있다면 그 옷의 색깔은 어떤것인지?

조선치마저고리를 짓는데서 옷감도 좋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기에게 알맞는 색깔을 잘 선택하여 지어입는것이 중요하답니다.

먼저 조선민족옷전반에 관통되는 색깔의 특징에 대하여 리해를 가져봅시다.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은 흰옷을 즐겨입었을뿐 아니라 원색의 조화가 훌륭히 이루어지도록 옷을 지어입었습니다. 풀색저고리, 노란색저고리, 다홍색치마와 같은 원색의 옷색깔들은 흰색을 비롯한 연한 중간색의 일상옷색파는 달리 명절옷을 비롯한 화려한 치례옷 또는 어린이들의 색동옷들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유서깊은 평양의 모란봉기 숲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 월향전시관은 수많은 해외동포들 속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손님들은 아름다운 조선치마저고리를 잘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하며 누

그럼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조선치마저고리색깔을 선택해봅시다.

일반적으로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은 흰색에 가까운 화려한 색인 연한 분홍색, 노란색, 하늘색 등의 밝은 색이 어울리고 40~50살정도의 여성들은 푸른색, 룽두색, 보라색 등이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옷색깔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은 달라지고있습니다. 예상외로 젊은 여성들이 진한 색을 택하기도 하는데 그 색들은 세련미를 더해준답니다. 그런가 하면 중년, 노년기 여성들에게는 밝은 색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10년정도 젊어보이게도 합니다. 그것은 색이 세분화되고 여성들의 색에 대한 미감도 매우 민감하게 발전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문자들에게 『나에게는 무슨 색깔이 잘 어울리는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을 받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그러나 물음은 간단해도 그에 대답을 주자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조선치마저고리는 입는 장소에 따라 결혼식옷, 행사옷, 명절옷, 일상옷, 무대복 등으로 가를수 있는데 그에 따라 색깔도 달라져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조선옷주문자에게 옷의 용도를 묻습니다. 그런 다음 그 여성의 체격과 키, 나이와 성격, 얼굴형과 피부색 지어는 눈과 코, 입이 큰가 작은가 하는것까지 구체적으로 따져봅니다.

그래야만 그에게 알맞는 치마저고리의 바탕색깔과 무늬를 선택하므로 보는 사람의 눈맛에도 좋고 주문자의 미감에도 만족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봅시다.

조선치마저고리는 저고리와 치마의 색깔을 한가지 색으로 하는가 아니면 대조가 되는 색으로 하는가, 다르게 하는 경우 저고리를 밝은 색으로 하는가, 어두운 색으로 하는가에 따라 여성들이 키가 커보이게도 하고 작아보이게도 하며 우아해보이게도 하고 세련되어보이게도 할수 있습니다.

얼굴이 닭알형이고 살갗이 흰 여성들은 그 어

느 색깔이나 다 어울립니다.

그러나 얼굴형이 표준형(닭알형)이 못되고 살갗이 밝지 못하다든가, 목이 짧거나 어깨가 넓은 여성들은 대체로 옷색깔을 심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런 여성들은 저고리는 될수록 밝은 색깔을 택하고 치마를 같은 계렬의 색깔에서 약간 진한 색깔로 하여 색이 우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목이 짧고 어깨가 넓은 경우에는 깃을 길게 하여주는것과 함께 무늬를 바탕색과 대조가 되는 색으로 하되 어깨가 떨어져보이는 위치를 선택하여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목이 상큼하게 빠져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양복은 얼굴형에 따라 목선변화를 자유자재로 하여 어깨높이를 부속자재로 조절해줄수 있지만 조선치마저고리는 이렇게 색과 장식으로 신체적인 결함을 극복할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준비된 치마저고리감이 있어 불가피하게 그것으로 지어입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마음에 없는 색이라고 포기할것이 아니라 무늬의 색깔과 크기 등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 옷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다 중요한것은 조선옷설계가와 구체적인 합의를 가져보는것입니다. 누구나 조선옷제작자에게 의거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치마저고리를 마련할수 있습니다.

해외동포여성들에게 아름다운 조선치마저고리를 지어드리는 저희들의 기쁨은 한량없습니다. 그럼 모처럼 조국에 오신 기회에 치마저고리를 지어입게 되는 그날 우리 다시 만납시다.

월향전시관 조선옷제작실 박혜영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뉴우의 용맹

고구려의 동천왕이 즉위(227년)하여 20년이 되던 해 10월 어느 날이였다.

동천왕의 지휘밑에 불의에 침입한 위나라군사를 내쫓으며 추격하고 있던 고구려군사들은 지형적으로 불리한 어느 한 지점에서 력량을 수습해 가지고 중원부대와 합세하여 반격해오는 위나라침략군과 맞서게 되었다.

형세는 매우 위급하게 되었다.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적을 막자고 해도 너무 멀었고 주요성들의 군사를 중원하도록 부르기에도 이미 때가 늦었다.

《이제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왕은 신하들을 둘러보며 계책을 물었다.

신하들도 급기야 변한 형세에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을지 몰라 왕의 얼굴을 쳐다볼뿐이였다.

이때 한 신하가 임금앞에 나섰다. 뉴우였다.

《형세가 불리하다고 우리가 어찌 헛되이 죽을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한가지 계책이 있으니 실현하도록 허락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계책이냐?》

《저에게 몇십명이 먹을수 있는 큰 음식상을 차려주시오이다.》

《음식상을?》

《그것을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 음식을 대접하면서 기회를 보아 적장을 처리하겠나이다. 그러면 적들속에서 일시 혼란이 일어날테이니 이 계기를 타서 대왕께서 군사를 출동시키면 역경을 순경으로 돌릴수 있으리라 봅니다.》

《…》

왕은 잠시 침묵에 잠겨있더니 옆드려있는 뉴우를 일으켜세워 두손을 잡아쥐었다.

《그대의 희생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을것이다.》

고구려군사들은 큰 음식상을 마련하여 뉴우에게 주어보내었다.

적진에 들어간 뉴우는 왕의 친서라면서 한장의 편지를 내놓으며 말하였다.

《대장에게 변변치 못한 음식으로 인사를 전하니 받아주기 바랍니다.》

적장은 편지를 보고 그사이에 쫓기고 싸우면서 지친 몸과 허기진 배를 달랠수 있게 되었다고 흐뭇해하면서 어서 음식상을 펴라고 하였다.

이때 뉴우는 음식그릇밑에 칼을 감추어 가지고 적장 앞으로 다가가 그를 찔려죽이였다. 그리고는 이어 결에 있던 적들을 제끼고 자기도 희생되었다.

그러자 적진은 삽시에 혼란에 빠졌다. 사방으로 조이며 은밀히 접근해가던 고구려군사들이 일시에 적을 들이쳤다.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지다가 맞아죽고 찔려죽어 거의 몰살당하고 말았다.

* * *



백두산
천지

우리 나라의 자연호와 인공호

예로부터 산좋고 물맑아 금수강산이라고 불리워온 조국에는 아름답고 리용가치가 높은 호수들이 가는 곳마다 펼쳐져 있다.

강수량과 지하수가 풍부하고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낮은 지대와 고원, 평坦한 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조국땅에는 기나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자연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력발전소건설과 관개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인공호(저수지)들도 적지 않게 생겨났다.

자연호와 인공호의 총 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약 5%를 차지한다.

현재 자연호만 하여도 100여개가 있다. 그 가운데서 호수면적이 5km²이상되는 자연호수들은 5개정도이며 1km²이상되는 자연호수들은 20여개나 된다.

조국의 북변 백두산의 천지와 최남단 한나

산의 백록담은 분화구에 물이 고여 이루어진 호수들이다. 이 호수들은 비교적 규모가 클뿐 아니라 매우 깊고 물온도가 낮은것이 특징이다.

삼지연은 이곳으로 흐르던 강하천이 백두산화산분출시기에 용암과 부석 등에 의하여 막혀서 생겨났다. 삼지연은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일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명승지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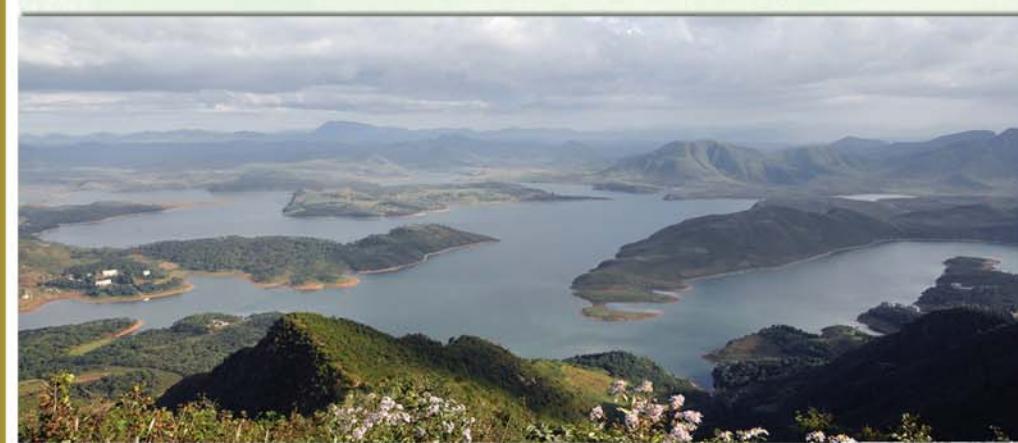
어랑군의 장연호와 무계호는 땅끊임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깊은 골짜기나 만입구가 용암에 의하여 일부 막히고 막히지 못한 나머지부분이 어령천에 의하여 운반된 흙모래로 막혀 이루어진 호수이다.

우리 나라에서 면적이 제일 큰 자연호로는 라선시의 서변포를 비롯하여 함경남도의 광포, 강원도의 동정호, 천아포, 시중호, 삼일포 등을 들수 있는데 대부분이 조선동해안에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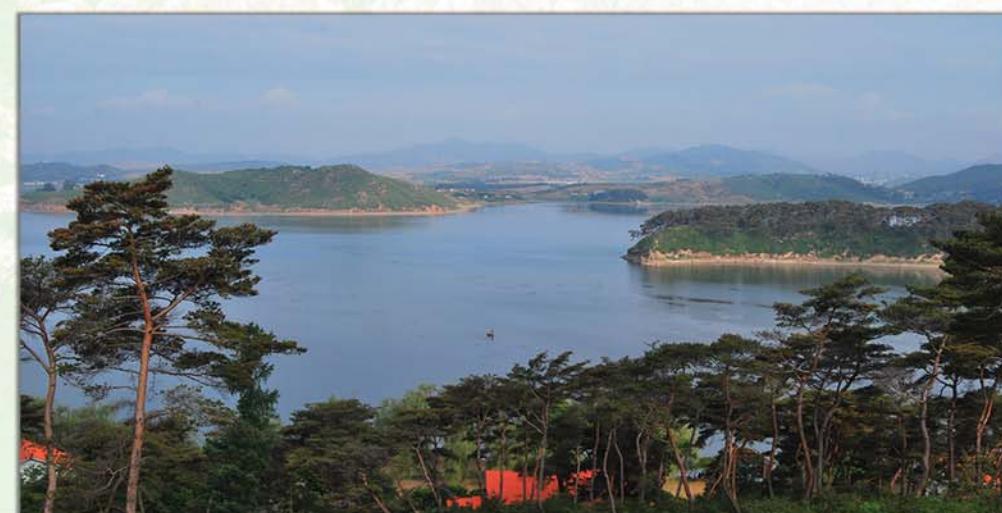
조국에는 수력발전, 관개, 큰물조절, 공업용수 및 음료수, 담수양어, 풍차조성 등을 목적으로 건설한 1 800여개의 인공호들도 있다. 인공호들은 자연호수들보다 많을뿐 아니라 규모와 리용가치에 있어서도 우월하다.

인공호는 건설형식에 따라 세가지로 나눌수 있다.

서흥호



연풍호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려 해

먼 앞날의 일이 아니라



나라가 분렬된지도 어언 70년세월이 되여온다. 그 기나긴 세월 우리 겨레가 얼마나 조국의 통일을 바라왔던가.

분렬의 교통속에 통일을 절절히 그리며 살고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평양시 보통강구역 류경2동에서 살고있는 황흔기의 나도 있다.

지금도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나온 나날을 그려보느라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손에 총을 잡고 전선으로 떠나던 때가 눈에 삼삼하다.

그때 나는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살았다. 전쟁이 심화되고 인민군대가 남쪽으로 진격하는 소식은 나뿐이 아닌 남녘인민들에게 키다란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우리 마을도 해방되었다. 집에 공화국기를 띠우고 기쁨에 넘친 나날을 보내던 어느날, 북에서 온 젊은 청년들이 마을사람들앞에서 연설을 하였다. 그때 그들이 《… 지금 우리 나라는 어려운 고비를 겪고있다. 너도나도 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떨쳐나서자.》고 하던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그들의 연설은 나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였다. 나는 선참으로 의용군에 입대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를 거치고 까치봉에서도 싸우며 나는 하루빨리 조국이 통일되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그러나 나의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한채 10년이라는 해를 여섯번이나 더 넘기였다. 64년이라는 긴긴 세월 어느 하루도 잊어본적이 없는 혈육들이였다.

그런 그들을, 꿈결에도 그렇게 그려보던 형님과 녀동생 그리고 조카를 나는 지난 2월 금강산에서 만나보게 되였다.

나는 우리가 만나게 되여있는 13번 탁앞에 서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서로 부르며 만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파연 64년이라는 세월이 가져온 늙음을 안고있는 나와 형님이 서로 알아볼수 있을가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였다. 이때 한 열댓발자국앞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는 속에 웬 젊은이가 달려와 《작은아버지 는 꼭 할아버지를 닮으셨구만요.》하며 나의 손

을 잡더니 앞으로 나아가는것이였다.

누군가가 나의 앞에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형님이였다.

《형님! …》

《기봉아! …》

우리는 이렇게 불렀을뿐 더 다른 말을 잊지 못하였다. 껴안은 순간 두 심장이 하나가 되어 높뛰였다. 이때 등뒤에서 《오빠!》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녀동생 가자였다.

《가자야! …》

우리 셋은 서로 얼싸안았다. 그러느라니 마음은 벌써 어린시절 방안에서 서로 맞붙어 뒹굴던 그때에로 달려갔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이후고 형님이 나에게 말하였다.

《그사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의 얘기도 들어보자꾸나.》

나는 인민군대에서 제대되어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수풍발전소에서 일하던 이야기며 평양미술대학에 입학하여 돈을 내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학금과 교복을 받으며 공부한 이야기, 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시미술창작사에 배치받아 창작사업에 열중하던 이야기 그리고 그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과 공훈예술가칭호를 받던 이야기, 또 나의 맏아들이 만수대창작사에서 조각을 하는것을 비롯하여 집안의 이야기를 하고 또 하였다.

값높은 존엄과 긍지를 누려온 나날들과 나라의 고마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형님과 녀동생은 눈물이 글썽하여 나의 두손을 꼭 잡았다.

64년만에 형님과 녀동생을 만났다.



내가 너무도 범상하게 여기는 일들에 대하여 그토록 놀라워하는 그들의 모습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자기만을 위한 사회에서 사는 그들이 나를 이해하면 얼마나 할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나의 말에서 진정을 느꼈고 돈 한푼 내지 않고 오히려 장학금과 교복까지 받으며 공부한 사실이며 번듯한 살림집을 거저 쓰고 사는 사실 등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마음속으로 알았으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혈육들을 만나고보니 통일은 이제 더는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절박성이 더더욱 가슴 속깊이에 와닿는다.

나는 믿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6. 15북남 공동선언과 10. 4선언이 있고 올해에 발표된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이 있는 한 통일이 이룩되지 못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는것을.

아무리 적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 소동을 벌려놓아도 통일로 향하는 겨례의 전진은 막을수 없다.

나는 형님과 녀동생 그리고 조카와 작별하면서 북남공동선언들이 있는 한 우리는 꼭 다시 만나며 하나님의 강토에서 복락을 함께 누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자고 약속하였다.

그렇다. 통일은 먼 앞날의 일이 아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류경2동 황기봉



《순사돼지 꿀꿀—》

주체26(1937)년 6월 4일, 압록강기슭에 자리잡은 조국의 북변 보천보의 밤은 깊어가고있었다.

동네애들과 저녁늦도록 술래잡이를 하며 밖에서 놀다가 잡자리에 들었던 아홉살난 칠성이는 갑자기 울리는 요란한 총소리에 놀라 바지피춤을 부여잡고 밖으로 뛰여나왔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가 보천보의 일제순사들을 통쾌하게 쳐부시고있었던것이다. 보천보는 순식간에 화염으로 충천하였다.

잠에서 깨여난 사람들이 거리로 떨쳐나섰다. 칠성이도 어른들 틈에 기웠다. 전투가 끝난후 인산인해를 이룬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칠성이도 김일성장군님의 연설을 들었다.

유격대가 거리를 떠난후 집으로 돌아온 칠성이는 돼지우리에서 별스레 꿀꿀대는 소리를 듣게 되였다. 우리로 다가가보니 한마리밖에 없던 돼지우리안에 난데없이 또 한마리의 어미돼지가 있는것이였다. 칠성이이는 아마도 누구네 집 돼지가 총소리에 놀라 우리를 뛰쳐나왔다가 여기에 들어온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돼지는 북데기속에서 나올념을 하지 않고 대가리를 더 깊이 쳐박는것이였다.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며 동네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칠성이의 아버지는 《누구네 집 돼지인지 보자.》고 하면서 광솔불을 켜들었다.

낯선 돼지는 북데기로 온몸을 다 가리워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막대기로 검불을 들추고 《이놈의 돼지 겁두 많다.》 하며 잔등을 가볍게 때렸다. 그러자 북데기속에서 《꿀꿀—》 하는 소리가 났다.

《이것 봐라.》

칠성이아버지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한번 더 잔등을 때렸더니 또 《꿀꿀—》 소리가 났다. 분명히 돼지소리는 아니였다.

광솔불을 좀 더 가까이 대고 북데기를 헤치던 칠성이아버지는 흄칫 놀랐다. 그것은 돼지가 아니라 일본순사였다.

제노라하면 일본순사가 유격대불벼락에 어찌나 혼이 났던지 살겠다고 숨을 곳을 찾아 헤매이다가 칠성이네 돼지우리속으로 기여들어갔던것이였다.

그 순사는 그후에도 정신이 나가 돼지처럼 계속 꿀꿀거리면서 아무데나 대가리를 털어박군 하였는데 종시 병을 고치지 못했다고 한다.

차기 녀편네와 말할 때도 꿀꿀거리였고 제 집 아이와 말할 때도 꿀꿀거리였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사람들은 일본순사들을 가리켜 《순사돼지 꿀꿀—》, 《돼지순사》라고 놀려주군 하였다.

* * *

겨레는 6. 15통일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역사적인 2014년 신년사에서 제시된 조국통일파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는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의 발표 후 해내외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속에 새로운 첫 걸음을 내디딘것이 바로 지난 2월 금강산에서 마련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였다.

주체89(2000)년 6월 북남수뇌상봉에서 6. 15공동선언이 발표된후 거의 10년간 해마다 수개월에 한번씩 열리던 혈육들의 상봉이 파란곡절을 겪고 4년 만에 열린것을 계기로 온 겨레는 또다시 통일의 희망속에 가슴설레였다.

국토분렬로 하여 끊어졌던 혈육의 정이 이어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온 겨레는 6. 15공동선언을 리행하는것이 민족이 살길이라는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6. 15공동선언은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북남수뇌상봉에서 마련된 최고의 북남합의문건이다. 6. 15공동선언을 통하여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것을 세계앞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그후 북남사이의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대화와 접촉, 협력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끊어졌

던 땅길과 바다길, 하늘길을 다시 잊는 사변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것도 6. 15공동선언이 겨레의 가슴속에 애국의 불을 지핀 결과이다. 6. 15통일시대가 활력있게 전진하는 속에 북남 사이에 또 한차례의 역사적인 수뇌상봉이 마련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10. 4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전체 조선민족은 통일이 결코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는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

현 북남관계문제는 6. 15공동선언에 대한 태도와 리행의지에 달려있다. 북남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합의하고 세상에 공표한 공동의 통일강령인것만큼 모든 문제는 그 실현에 달려있다.

복잡하게 얹혀진 북남관계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모든 사고와 행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이다. 북남관계문제 다시말하여 우리 민족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민족의 리익을 최우선시하는것이 필수적요구이다.

우리 민족은 누구도 북남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동족간의 대결상을 하루빨리 끌장내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문이 열리기만을 고대하고있다. 북남관계에 대한 온 겨레의 간절한 염원을 가장 과학적으로 반영하고 민족의 리익을 절대시하고있는 것이 바로 북남공동선언이다.

6. 15통일시대에 북남쌍방은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에 철저히 서서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북남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사이의 관계로 확고히 자리잡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우리 겨레는 누구나 6. 15통일시대에 백두산과 제주도, 평양과 서울을 오가고 금강산을 유람하며 해내외겨레가 통일만세를 부르며 울고 웃던 그때를 몹시 그리워하고있다. 그러한 시기가 다시 도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민심의 지향과 요구는 공화국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의 요구 다시말하여 북남공동선언을 실천해나가는데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어떻게 하나 동족간의 대결을 금지하고 비정상적인 북남관계를 북남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바로잡으려는 의도로부터 출발하여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발표한것이였다.

불미스러운 대결의 역사에 단호히 종지부를 찍고 이 땅우에 공고한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놓기 위한 겨족적인 투쟁의 앞장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가 펼펼 휘날리고있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고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려 해

평화를 파괴하는 장본인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미국은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그 무슨 《년례적인 방어훈련》을 운운하며 남조선에서 감행된 이번 전쟁연습에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5 200여명과 남조선피뢰군 1만여명, 해외주둔 미군 5 000여명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과 핵잠수함을 비롯한 최신공격수단들과 첨단장비들이 투입된 가운데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실전을 가상하여 진행되었다.

모처럼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마련되고있는 시기 조선반도에 절실히 필요한것은 평화적인 환경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광들은 상투적인 수법그대로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하고 광고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을 짓밟고 《B-52》핵전략폭격기까지 끌어들이며 대규모적인 북침핵불장난소동을 끌끌내 벌려놓았다.

이로써 호전광들은 대화와 평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주범이 저들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세기와 난대를 넘어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전쟁소동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다.

이로 인한 민족의 막대한 희생과 소모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수 없는 혐악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오늘날 조선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뿐이 아닌 세계의 평화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다.

그리면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침략의 발을 떼지 못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두말할것없이 미국의 세계제패야망때문이다. 지리적으로 볼 때 조선반도는 극동의 판문으로서 유라시아대륙과 잇닿아있으며 대륙으로 들어가는 첫 입구에 놓여있다.

조선반도의 이러한 중요성은 침략국가로 태여난 첫날부터 세계제패를 꿈꾸어온 미국에 있어서 조선에서 쉽게 발을 뗄수 없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조선은 근대시기부터 혈강들의 각축전장으로 되여왔으며 그 나날에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6. 25의 참화도 겪었다.

제2차세계대전후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녘땅에 기여든 미제는 첫날부터 전조선을 저들의 지배하에 넣기 위한 침략정책을 작성하고 그 수행에 달라붙었다.

《나의 대리인과 나는 … 모든 분쟁(북에 대한 각종 도발행위들을 의미)들은 남한의 안보무력에 의하여 조장된것임을 단호하게 확신합니다.》

이것은 1949년 8월 2일 하우스만이 당시 남조선에 와있던 미군사고문단 단장이었던 로버츠준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이다.

또한 알렌 덜레스가 전쟁이 일어나기 닷새전인 1950년 6월 20일 리승만에게 보낸 서신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 나는 펼쳐지고있는 위대한 극적인 사변(조선전쟁을 넘두에 둔것임.)에서 귀국이 놀게 될 결정적인 역할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몇가지 자료만 놓고보아도 미국이 전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어떻게 전쟁준비를 하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결국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3년간의 전쟁에서 심대한 정치군사적배를 당하였으며 거기서 응당 교훈을 찾을 대신 반세기이상 자기의 침략적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는 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있다.

미국이 전쟁연습때마다 입버릇처럼 외워대는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것은 한갓

미제의 전쟁연습책동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본이 세계여론의 말밥에 자주 오르고 있다.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망동을 계속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달 사이에만도 일본은 과거역사부정, 영토분쟁 야기, 광란적인 군국주의적 망언 등으로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마음을 흐려놓았다. 그 가운데는 중국 할빈역에 전립된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대한 비난행위도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안중근은 일제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시기에 목숨걸고 이 또 히로부미(이등박문)를 처단한 반일애국렬사이다.

이또 히로부미로 말하면 조선을 침략하는데서 맨 앞장에 선 피수로서 무력을 동원하여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조선의 주권을 강탈하였다. 나아가서 일본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확대하며 도처에서 야만적인 살륙과 파괴, 랙탈을 일삼도록 하였다.

돌이켜보면 일제가 조선에서 저지른 죄악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일제는 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간악한 방법으로 가장 야만적인 통치를 하면서 100여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그리고 20만명의 여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만들고 840만여명을 랍치, 련행하여 노예로 동파 전쟁터에 내몰았다. 거기에 조선민족말살을 꿈꾸며 말파 글 지어 성파 이름까지 빼앗으려고 날뛰었으며 수많은 귀중

위장막에 불파하다. 력사는 그런 연습과정이 실전으로 넘어간 허다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은 미국이 조선반도평화의 암적존재, 평화를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적라라하게 발가놓고 있다. 미국이 세상에 대고 《평화》에 대해 요

한 문화재부들과 지원을 파괴, 랙탈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일제는 아시아나라들에도 참혹한 재난을 들씌웠다. 중국에서의 남경대학살사건을 포함하여 일제가 이르는 곳마다에서 감행한 야수적 만행을 아시아인 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안중근렬사가 이또를 처단한 것은 정의로 불의를 짓밟아버린 장한 행동이다.

이러한 의로운 안중근렬사를 두고 일본반동들은 《테로분자》, 《범죄자》로 모독하고 비난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안중근은 력사에 유명한 항일의사이다. … 《안중근의사기념관》 건립을 〈테로분자에 대한 찬양〉이라고 한다면 일본집권자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한 행위에 대해서는 또 무엇이라고 말해야 옳은가.》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요르단신문 《알 디야르》는 《군국주의부활책동은 일본이 력사를 되돌려 조선인민과 아시아나라 인민들에게 또 다시 불행을 들씌우고 새로운 군사파쑈독재수립의 발판을 닦으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하였다.

지금 중국, 로씨야, 영국 지어 손우동맹 자인 미국까지도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군국화는 일본을 고립과 파멸에로 이끌어갈 뿐이다.

지난해에만 보아도 일본의 수상, 부수상, 총무상, 내각판방부장관 등 정계인물들이 집단적으

란스럽게 불어대고 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침략성을 가리우기 위한 가면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을 미국의 폭탄에 황폐화된 이라크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참상이 잘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윤영일

유적

창성향교

조선의 민족건축유산들 중에는 평안북도 창성군에 있는 창성향교도 있다.

창성읍을 흐르는 내천으로부터 북동쪽 약 300m되는 푸른 숲 우거진 산중턱 남향에 자리잡고 있는 창성향교는 조선봉건왕조 초기에 처음 세운 것으로서 고을의 량반자식들에게 봉건유교사상과 도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였다.



본사기자 조선일

향교의 상량문에는 1765년에 개건하였다고 씌여 있다.

향교건물의 맨 앞에는 자연석으로 높이 쌓은 축대 위에 명륜당이 서 있다.

정면 5간(15. 4m), 측면 2간(5. 6m)에 겹쳐 마합각지붕을 엮은 비교적 큰 건물이며 벽체가 없이 사방을 그대로 틔여놓았다.

명륜당 뒤마당을 지나 높은 계단우의 좌우켠에 겹쳐 마배집들이 동무와 서무가 마주서 있으며 그 뒤에는 대성전이 있다.

대성전은 정면 3간(11. 15m), 측면 2간(7. 1m)의 겹쳐 마배집이며 흘림기둥우에 2익공두공을 엮어놓았다.

정면에는 매간마다 네 짹씩으로 된 세 살문을 대여 옆으로 여닫게 하였다.

창성향교는 향교건물의 보편적인 구성과 배치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하여 당시 향교의 건축술과 운영방법 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유산으로 되고 있다.





칠보산의 가마바위

본사기자 김성철

기묘한 봉우리들과 바위, 절벽들로 독특한 경치를 이루고 있는
6대명산의 하나인 칠보산.

결혼식날 화대총각과 어랑처녀는 물론 그들을 태우고 가던 가마까지도
바위로 굳어졌다는 전설을 칠보산의 가마바위는 오늘도 전해주고 있다.

ISSN 1727-90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1-482134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